



	코스피 2142.64 (+12.40)		코스닥 672.18 (+3.73)
	금리(국채 3년) 1.52 (-0.03)		환율(원/달러) 1157.50 (-1.70) (5일)



[文정권 현주소]
기업 옥진 결과는
나라빛 높고
1% 성장률 '부메랑'
03

바이오 'CB 폭탄' 터질라 6500억 조기상환 리스크

코스닥 상장 주요 바이오사
CB 조기상환 리스크 확대

이탄 신약 임상실패 쇼크에
주가 하락 등 악순환 우려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신약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CB)가 되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임상 실패에 따른 충격이 업종 전체로 번지며 CB의 조기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채권 상환과 주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으며 빚만 늘어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CB 만기 상환 잔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침체된 시장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조기상환 압박 심해져

신라젠은 지난 1일 1100억원 규모의 CB 조기상환을 결정했다. '핵사백'의 간암 치료 임상 실패 이후, 주가하락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측은 "전환사채 이자율이 6% (기준 3%)로 상향되면서 고율 이자로 인한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요구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젠이 발행한 C

(바이오 기업 CB 미상환 잔액 현황)

(단위: 억 원)

기업명	CB잔액	만기일
헬릭스미스	약1035	2023년 9월
파맵신	1000	2024년 5월
에이치엘비	889	2020년 7월부터
에이치엘비생명과학	713	2021년 3월부터
바이오리더스	571	2021년 3월부터
제넥신	500	2023년 6월
이수앱지스	400	2024년 4월
아이진	239	2021년 12월부터
씨티씨바이오	210	2023년 9월
한스바이오테드	200	2023년 6월
바이오니아	200	2024년 10월
바이넥스	200	2020년 6월
EDGC	200	2022년 7월
마크로젠	약 170	2020년 2월부터
진매트릭스	142	2021년 1월부터
강스템바이오텍	120	2021년 9월
센트럴바이오	120	2022년 6월
수젠텍	100	2024년 9월
현대바이오	95	2022년 1월

*2019년 반기보고서 기준

/금감원

B는 내년 3월부터는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했지만, 주가가 그때까지 상승할 것이라 기대가 없었던 셈이다. 신라젠은 CB 전환가액을 기존 7만111원에서 5만7200원으로 한차례 낮췄지만, 지난 1일 기준 신라젠 주가는 1만8050원에 불과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센트럴바

이오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영향으로 세차례에 걸쳐 20억원 어치의 CB 조기상환에 나선 바 있다.

회사측은 "기한이익상실로 인한투자자상환요구로 인해 만기 전 사채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상환해야 하는 CB 잔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센트럴바이오의 CB에 대한 조기상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B의 주당 전환가액은 1135원이지만, 현재 기업 주가는 743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임상 중단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들도 대규모 CB 상환 잔액이 남아있어 우려가 커진다.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 임상 실패로 위기를 겪은 헬릭스미스 지난 해 9월 발행한 회사채 1000억원과 계열사인 제노피스가 발행한 34억원을 포함, 1034억8000만원 규모 CB를 발행한 상태다. 만기는 오는 2023년 9월이다.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각각 889억원, 713억원의 CB 상환 잔액이 남아있다. 만기는 내년 7월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역시 오는 2021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12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 바 있다.

◆주가 하락으로 '이중고'

CB 조기상환 리스크가 업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B는 회사채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메자닌의 일종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스피, 6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2.40포인트(0.58%) 오른 2,142.64로 거래를 마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0원 내린 달러당 1,157.5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암울한 경제전망 성장률 1%대 예측 속출

국내외 연구기관 '부진 지속' 예상
정부·한은 등 "2%대 회복" 전망도

2.0%, 내년에는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대 전망 속출... "당분간 2%대 힘들다"

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나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0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을 올해는 1.8%,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민간부문의 부진이 길어지며 정부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2%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산가능 인구 급감, 투자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등과 같은 요인이 더해지면 성장률 2%대 시대가 조기에 종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경제연구원도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내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둔화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투자가 줄면서 제조업 고용여건이 나빠질 수 있어서다.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중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했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BoA 메릴린치(1.6%), 모건스탠리(1.7%) 등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다.

이처럼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낮은 성장세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야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수출 부진과 민간 투자 둔화로 내년도 성장세가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내년에는 회복"... 낙관하는 정부

반대로 2%대를 전망하는 곳도 있다. 정부(올해 2.4~2.5%, 내년 2.6%)와 한국은행(2.2%,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2.3%), 국제통화기금(IMF)(2.0%, 2.2%) 등 상당수 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2%대 중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처도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내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하고 수출이 소폭 증가한다"면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99@

AI 한계 넘어 AGI... 삼성, 인공지능도 '초격차'

(인공범용지능)

삼성전자 'AI 포럼 2019' 성료
JY, 미래 먹거리 육성 의지 다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포럼 2019' 이틀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래 먹거리 육성을 향한 의지도 다졌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 R&D 연구소에서 삼성리서치 주관 포럼 이틀째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개회사에서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AI가 5G, IoT 기술과 연결되면 라이프스타일에도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래 기업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해야 하며, 도전 정신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한 삼성전자가 미래도 이 끌어 나갈 것으로 자신했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가 AI를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세계 5개국, 7개 글로벌 AI 센터를 운영하며 발전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IM부문 고동진 사장이 AI포럼 2019 이틀째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앞으로는 AI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GI(인공범용지능)'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더욱 획기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가 AI 개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재용 부회장 역할이 컸다. 지난해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사업에 180조원 투자를 밝혔으며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에

AI 연구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반도체비전 2030을 통해 133조원을 들여 AI 근간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도 약속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위구연 교수, 코넬 공대 다니엘 리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하는 데에도 직접 나서 AI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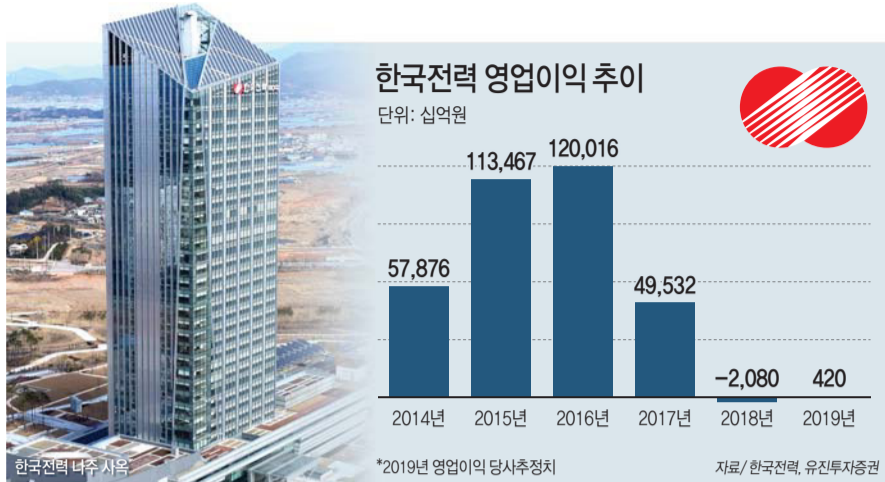
적자부담 국민에 떠넘기며... 한전, 말뿐인 '비상경영'

상반기 적자 9000억원 달해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 주장
직원 연봉은 꾸준히 상승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누진제 적자 보전 방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9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정부의 보전 금액이 마땅치 않자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없애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적자에도 한전 내부에서는 '제 배불리기'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완화 방안으로 한전이 입은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총 10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해 생긴 손실을 간접적으로 메워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2020년 예산안에 일회성 보전 방식으로만 편성하면서 누

진제로 인한 적자를 다 메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적자 전환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손실 9285억, 당기순손실 1조1733억을 내며 '비상 경영' 체제에 대한

한전의 선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전 내부에서는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등 '말뿐인 비상 경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2014년부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4년 7535만6000원 ▲2015년 7944만원 ▲2016년 8538만2000원 ▲2017년 8240만9000원 ▲2018년 8255만3000원이었다. 올해는 8024만5000원이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이 반영되면 올해 연봉액은 작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기조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받는 '억 대'의 기본급 또한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본급을 보면 ▲2014년 1억3306만원 ▲2015년 1억4033만원 ▲2016·2017년 1억4391만원 ▲2018년 1억5169만원으

로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억5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56만원이 증가했다.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억 대에 들어섰다. 2015년 9564만6000원이었던 성과급은 2016년 1억3705만원으로 억 단위에 올라섰고 지난해까지 이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적자나 흑자나 문제가 아니고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적자가 났는데 급여를 왜 올리냐고 반문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다고 보여진다. 흑자가 났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라서 급여를 3%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흑자 상황에서는 3%를 인상할 수 있겠지만 적자 상황에서는 그게 1~2%가 된다"며 "지금도 적자인 상황이 임금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위험 상품판매, 징벌적 손배를”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시중은행 상시모니터링 필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 F) 사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시중은행의 무차별 판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상품 선별, 판매 능력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금융사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면 이번 DLF 사태는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린 사건”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중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양상에 대해 깊은 논의와 검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된 여러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펀드 리콜제’를 제안했고,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이날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선별 및 판매 능력·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사의 부실 판매에 따른 책임과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분조위 또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 개별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며,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을 공개해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LF의 판매과정상 다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앞선 발제에 공감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고의적 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민영 기자 hong93@

특례상장, 바이오만의 잔치 ‘스톡옵션’ 제동

금감원, 상장 58개사 중 51개사
임직원에게 2240명에 3928만주
바이오 36개사 모두 ‘스톡옵션’
실적 저조해도 소수 임원만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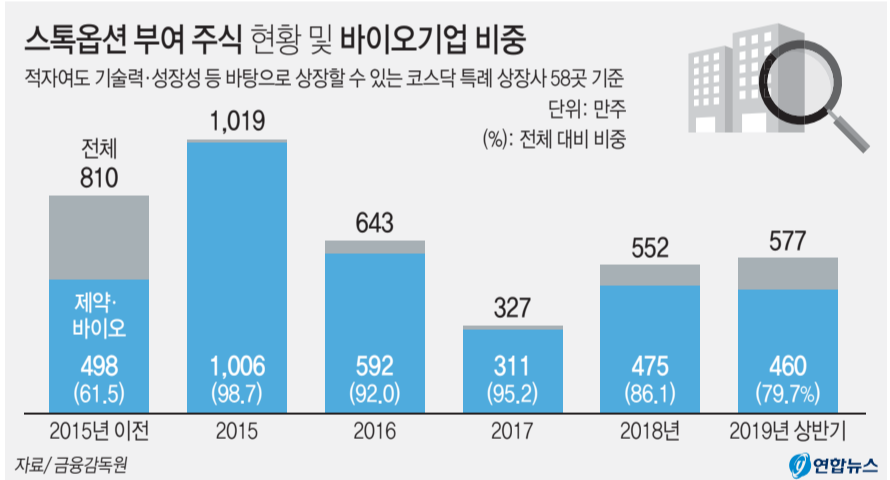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곳들이 영업적자에도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대상기간 동안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인 1716만주가 이미 행사됐고, 이 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바이오업종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이어졌다.

분석 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규모는 모두 3342만주로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1%에 달했다.

특히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



스톡옵션이 1006만주로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를 차지했다. 2016년에 상장된 A사가 520만주, B사가 104만주를 부여하는 등 상장 직전에 대량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문제는 특례상장사들이 이익을 내기도 전에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도록 하면서 투자자 피해는 물론 특례상장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며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

식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간 동안 전체 스톡옵션 중 절반이 넘는 2009만주가 임원 336명(15%)에게 부여됐다.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은 스톡옵션을 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됐다는 얘기가.

현재 51개사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지키면 된다.

최근에는 임상실패 발표 전에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특례상장사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업종 전반 조기상환 리스크 가능성”

>> 1면 '바이오 CB 폭탄...'서 계속

발행 기업 입장에선 인수자가 채권을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현재 주가가 CB 전환가액의 하한선 아래로 대부분 추락한

상태다.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도 꺾이며, 채권자들이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당분간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벤처투자사 대표는 “시장이 당분간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종 전반으로 조기상환 리스

크가 변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라임 자산운용의 메타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메타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회사채를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주가가 부진한데다, 업종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만큼 투자금을 조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세경 기자 seelle@

기업 옥죌 결과는... 나라빛 ↑·1%대 성장률로 '부메랑'

집권 반환점 文정권 현주소

〈中〉 '소주성'에 역풍 맞은 韓경제

근로소득 16년래 최대 격차
비정규직 748만명 역대급
자영업자·서민에 직격타로
내년 적자 국채 60조원 달해
친기업정책으로 전환 목소리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룸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배경은 전 정권 때 행해진 경제정책과 연관이 깊다. 당시 전 정권은 초이노믹스(기업 소득 환류세제 및 LTV·DTI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최경환호 경제정책)·친재벌 정책 등을 구사했다. 이에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 정권 출범 전인 2012년 774만6812원에서 지난 2016년 834만7922만원으로 60만1110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144만6963원으로 같은 기간 9만4890원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우리사회에 퍼진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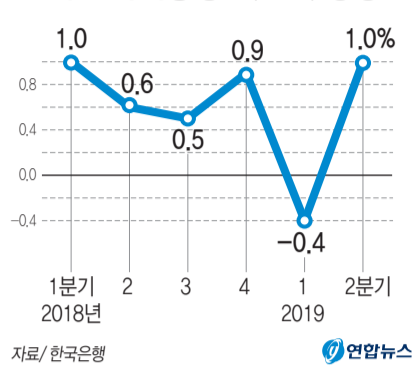
람중심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했다. 사람중심경제는 전 정권과 달리, '분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세계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불공정 거래 개선)' 등 3개 축이 사람중심경제를 이루고 있다.

'사람중심경제'를 앞세운 현 정권은 그렇게 집권 반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정권 때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 하위 20%인 1분위가

구 근로소득(월 43만8700원)은 6분기 연속 감소했고, 5분위 배율은 5.3배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큰 소득격차를 보였다. 그뿐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년래 최대인 748만명으로 전년 대비 87만명이 급증했다.

현 정권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한 자영업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골목상권 업종 경기전망'에 따르면, 영세상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두자릿수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19개 주요업종 평균 매출 증감률은 올해 -13.7%, 내년 -15.8%로 나왔고 평균 순이익의 증감률은 올해 -17.0%, 내년 -17.2%로 예상했 순이익은 매출에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빼고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갖는 순이익을 뜻한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전 정권 때와 다르지 않자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주목했다. 실제 현 정권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렸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등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혈세로 매워야 하는 공무원 수 역시 17만명을 증가시켜 국민들로부터 세수 확대라는 불감증을 낳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내년(예산안)에 나라빛(적자 국채)을 60조원을 발행해 깜짝 놀랐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거둬 무상 시리드를 했다. 정부가 '소주성'을 계속 고집했지만 하위 계층이 더 어려워졌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률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IMF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

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여기서 IMF가 세계경제의 전망치를 3.3%에서 3.0%로 0.3%p, 선진국 경제를 1.8%에서 1.7%로 0.1%p 내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하락폭은 큰 편이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마저 쪼그라드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지금이라도 친기업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 때 “(현 정권이) 친노동·반시장정책에 문헌 경제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진단 중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30·50국가(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성장률이 둘째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IR(투자설명회)에서는 “이른바 3050(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한국이 '아웃스탠딩'(탁월하고 두드러진)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LG전자, 특허소송 中으로 전선 확대

하이센스, 협상요청에도 모르쇠
중국 TV기업 저가 공세에 '제동'

LG전자가 중국으로 특허 전쟁 전선을 확대한다. 무려 12년만이다.

LG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중국 가전기업 하이센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서 판매 중인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무선전 기반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등 LG전자가 보유한 편의성 관련 기술 4건을 하이센스가 침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LG전자는 올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전선'은 더 커지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QLED 표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8K 해상도 표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냉장고 제빙기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현지 업체들과 소송을 시작했다. LG그룹으로 보면 LG



LG전자의 8K 올레드 TV.

/LG전자

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도 특허 침해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중국 업체라는 데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중국 업체는 현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탓에 소송전을 치르기 까다롭기로 잘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LG전자도 2007년 TCL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후 12년여만에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송이 TV 시장에서 LG전자의 절대강함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업체가 LCD TV 저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중저가 시장을 거의 독식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중국 업체 전략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재용 기자 juk@

“AI·ICT 융합엔 韓,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박상규 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가 초지능·초성능·초실감·초연결과 연결되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을 개발한다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은 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 참석해 '변화와 혁신으로 탈바꿈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AI를 잘 쓰는 나라', 국가지능화를 목표로 AI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는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ICT 관련 9개 전문가가 공동으로 주관해 6일까지 진행된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등 ICT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지만 AI 역량에서는 미국·중국에 뒤지고 있다”며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AI+하드웨어'나 'AI+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AI와 ICT 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로 신사업 창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AI 지능형 반도체 칩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AI+ICT 융합으로 홀로그램 게임, 스마트 워치, 로봇 판사,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흡, 가상현실(VR)을 활용한 AI 지원 진단 등 더 실감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AI 통합 교통시스템이 등장하고, AI로 미세먼지를 예측하고, 인력문제가 제기되는 국방 분야에서 AI가 지원하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AI 사회복지사도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이르면 AI가 고도화됐고 2020년에는 물체나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인간 감성을 처리하는 수준까지 진화되고, 2030년 이후에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AI, 슈퍼 AI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특히 이미지 등에서 객체를 추출하는 능력이 AI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객체 추출 능력이 92~95 수준인데 AI가 96까지 측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로 미국 내 일자리가 50% 정도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일자리 감소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윤정 기자 echo@

카카오로 더 젊게... 120만 신규계좌와 80%가 '2030'

증권가의 디지털혁신

③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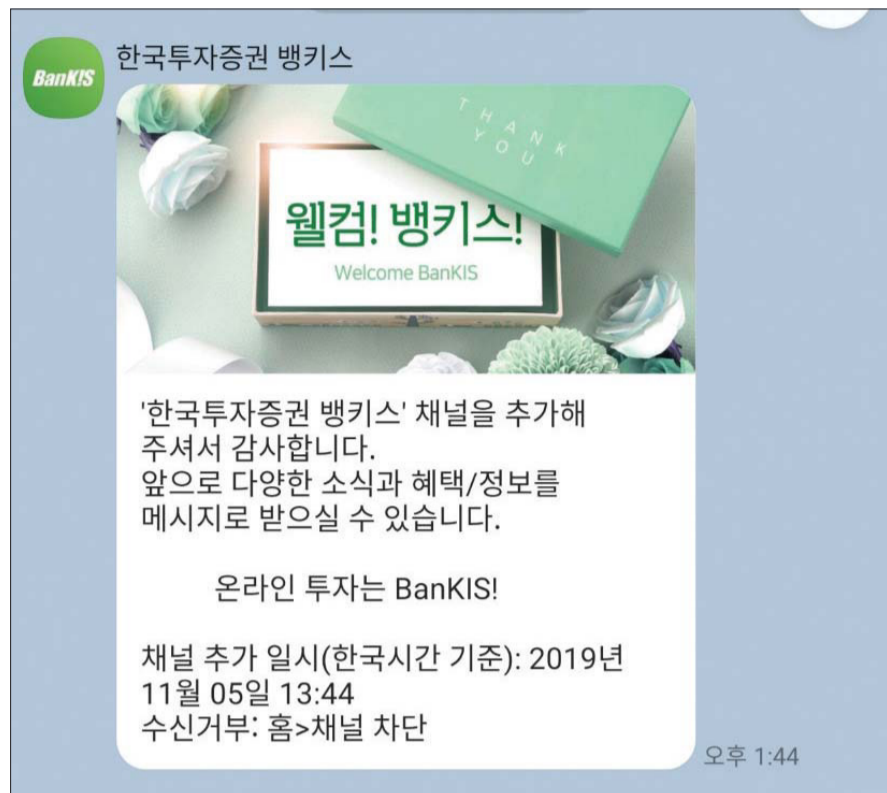
카카오뱅크와 손 잡고 채널 개설
젊은세대 구미 당길 행사기획
미래 증권사고객 선점에 주력

20·30세대의 젊은 투자자는 모든 증권사의 미래 고객이다. 재산 증식기인 30대 중반 이상의 남성이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통념은 이제 깨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젊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3월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시작했다. 이들의 협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와 연계해 한투증권에 가입한 신규 계좌 수가 120만 좌를 넘어섰다.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계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겠다는 카카오의 야심과 디지털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투증권의 고민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20·30 젊은 소액 투자자를 잡아라

한투증권은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투자자 공략에 힘쓰고 있다. बैं키



한국투자증권 बैं키스 채널.

스 이벤트, 5000원의 축하금 지급 이벤트 등 젊은 세대의 구미를 당길만한 행사를 연이어 기획 중이다. 월간 사용자가 약 44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의 과급력 덕을 톡톡히 봤다.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일

문 사장의 의지기도 하다. 정 사장은 취임 초부터 디지털 금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디지털 금융 추진 조직이 신설된 것과 업무 개선 조직을 경영기획총괄 직속 업무혁신추진부로 확대 개편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주식,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개척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정 사장은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카카오뱅크를 통해 들어온 고객 120만명 중 80% 이상이 20·30세대의 젊은 층”이라며 “인터넷 구매에 익숙한 이들이 애플 같은 유망 해외 주식을 온라인 쇼핑 하듯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 사장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투증권은 예비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벤트도 기획했다. बैं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킹 모의투자대회’다.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주간 진행 중이다. 투자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이며 1억원의 모의투자 운영자금을 활용했다. 최서룡 e비즈니스본부장은 “이번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예비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프트콘 대신할 ‘금융투자상품권’, 이젠 모바일로

이젠 모바일로 금융투자상품권을 주고받는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른다. 내년 5월 출시를 앞둔 한투증권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서비스’ 때문이다. 소비자는 한투증권에서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권을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기프티콘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다.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한투증권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하루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칙 때문이다.

한투증권의 금융투자 상품권은 지난 달 금융위에서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중 하나에 포함됐다. 한투증권은 2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권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상품권을 유통할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의 단계에 있다”며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초보자들이 쉽게 투자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LS전선 초전도 송전기술 준공식 모습. 명노현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중갑 사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세계 최초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용인~신갈 사이 1km 구간서 사업시작

LS전선이 한국전력과 함께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했다.

LS전선은 5일 경기도 용인 흥덕 변전소와 신갈 변전소 사이 1km 구간에 초전도 케이블 사업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 외에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 5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LS전선은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지만, 상용화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초전도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도심에서는 기존 전력구와 관로 등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케이블만 교체해도 전력량을 늘릴 수 있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juk@

한경연 “日국가채무 급증, 남 얘기 아니다”

日 저성장·고령화·경기부양책 반복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비슷한 일본이 저성장과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한국 경제도 이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치며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이 내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가 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 급증, 매년 나오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은 하향 등의 공

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양국 차이는 일본은 대외금융순자산이 세계 1위이고 경상수지 흑자에서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

SKT-광주시, 4년간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추진

4년간 271억 투입, 전력생산 효율 UP

SK텔레콤은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효성,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구성된 ‘SKT컨소시엄’으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정보를 수집·이용해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 하는 전력망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국책과제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의 일환이다.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총 2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왼쪽)과 신용식 SK텔레콤 스마트 에너지 시티 유닛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컨소시엄은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고객참여형 그린 요금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가정에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하고 시간별·기기별 사용량을 분석해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구직자 10명 중 6명 “돈 쓸수록 취업 가능성 ↑”

인크루트·알바콜 구직자 설문조사

자격증·외국어에 가장 많이 지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위해 돈을 많이 쓸수록 합격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많이 쓰는 취업 사교육비 분야는 자격증과 외국어였다.

5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구직자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는 ‘구직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즉 취업사교육비와

합격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취업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분야(중복 선택)로는 △어학시험(20.8%) △전공 자격증(19.3%) △자격증(18.8%) 순으로 많았다. 공인시험과 자격증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외국어에 지출한 비율이 높았고, 자격증에 쓴 비율이 도합 38.1%로 취업 사교육 지출 1위에 꼽혔다.

구직자들이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최소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에 달했다.

/한용수 기자 hys@

‘은행 안에 은행’... 독립 조직으로 디지털 뱅크 선도

디지털금융 시대

④ 우리은행

플랫폼·핀테크 기업 제휴 강화
비대면 확대 넘어 열린금융 목표
위비뱅크, 오픈뱅킹 채널 구현
원뱅크 통해 모바일 부문 선도

디지털 금융시대가 도래하면서 ICT·핀테크 기업과 시중은행의 협업은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디지털 부문’을 미래 금융지주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꼽고 플랫폼·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이유다. 디지털금융그룹이 ‘은행 안에 은행(BIB, Bank in Bank)’ 형태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점도 우리금융만의 특장점이다. 디지털금융그룹에 사업추진의 독립성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단순한 비대면 채널 확대를 넘어 전면적인 ‘디지털 뱅크’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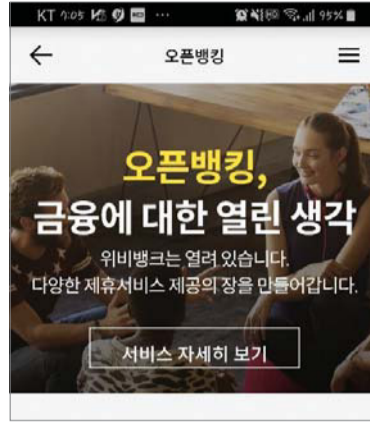
◆‘오픈 파이낸스’로 새로운 가치 창출
우리은행의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전략은 기존의 금융권에서 추진했던 폐쇄적 방식으로서의 혁신이 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의 간편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위비뱅크’ 리뉴얼을 완료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위비뱅크’ 내 ‘오픈뱅킹’ 카테고리. /홍민영 기자

닌, 은행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은행 내·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간편뱅킹 특화 앱인 ‘위비뱅크’를 외부 참여사와 고객간의 접점을 제공하는 오픈뱅킹 채널로 구현해 다양한 외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 채널에서 우리은행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채널에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제휴·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디벨로퍼 랩(Lab)’을 오픈했다. 디벨로퍼 랩은 기존

‘위비핀테크랩’과는 별도로 유력 ICT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해, 핀테크 기업의 전문적인 육성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외에도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기술제휴 및 직접 투자를 병행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확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골드만삭스와 같은 해외 선도 금융그룹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까지 오픈소스 형식으로 공개하는 혁신적 오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업이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회사에게도 디지털 혁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애자일도 느리다... 디지털부문 ‘독립’
우리은행은 디지털부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안에 은행(BIB·Bank in Bank)’ 형태의 디지털금융그룹을 설립했다. 영업점에 의존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조직 모델 구축이 디지털금융그룹의 중장기적 목표다.

특히 우리은행은 디지털부문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자율성 및 자체적인 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과 자율

성을 적극 보장했다. 이어 디지털금융 그룹 별도의 순수 비대면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투자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립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독립 취지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디지털금융그룹은 향후 핀테크 기업과 오픈API 기반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다.

‘원(WON)’ 뱅킹은 새로운 BIB의 핵심채널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8월 기존 모바일뱅킹 ‘원터치’를 원으로 리뉴얼 개편한 후 이를 대표 브랜드(BI·Brand Identity)화 해 그룹사 전체의 모바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 관리한다. 원은 간편뱅킹 앱인 ‘위비뱅크’와 더불어 우리은행의 모바일 부문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의 모토는 ‘간결(Clear)·맞춤(Fit)·안내(Lead)’라며 “고객들은 원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결한 화면 구성과 쉬운 메뉴 구조 ▲고객별 맞춤형 공지 및 심플한 거래 연계 ▲은행의 고객별 금융상품 추천 등의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첫째줄 왼쪽부터)과 이원삼 농협은행 IT부문 부행장, 남영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 등 임직원들이 DT 추진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협금융

농협은행 디지털전환 추진전략 현장점검

김광수 회장 “빅블러 시대, IT부문 중요”

NH농협금융은 5일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의 IT, 디지털, 기획 담당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은행 IT부문 디지털전환(DT)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8일 농협금융의 ‘DT비전 선포’에 이어 김광수 회장이 전략이행과 대응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회장은 농협은행 IT부문의 DT추진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직

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사업부서-IT간의 경계를 허무는 애자일(Agile) 활성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대응 ▲디지털 인재양성 등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IT 부문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김 회장은 “IT부문의 DT추진계획이 ‘사람 중심의 디지털 농협금융’이라는 비전에 맞게 잘 수립됐다”며 “테크 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IT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신한금융, 사회공헌 효과 측정연구 추진

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계량화 작업 통해 지속성 측정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세대학교와 사회공헌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도를 측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철 신한금융 브랜드홍보부부장장과 이호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양사의 연구진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병철 신한금융그룹 브랜드홍보부부장(왼쪽)과 이호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또 향후 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까지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방침

이다. 신한금융 이 부문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신한금융 사회공헌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중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 경영대학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 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경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신한금융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향후 금융산업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카드 ‘비스포크’ 디자인 카드 4종 선보여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카드.

이번에 적용된 비스포크 디자인은 웨딩 테마를 반영한 ▲화이트&우드 ▲소프트&파스텔 ▲다크&우드 ▲유니크&포인트 총 4종을 출시했으며, 비스포크의 질감까지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홍민영 기자

유병자·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

신한생명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

신한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해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간편심사 암보험은 3가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조건 유무 ▲5년 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진단·입원·수술 이력 유무 등 2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암 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를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80세로 높였다.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1000만원의 진단금여금을 지급한다. 또 유방암 진단 시 500만원, 전립선암 진단 시 200만원을 보장한다.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금여금은 100만원이다. 김희주 기자 hj89@

KB손보 중국법인 중고객서비스 평가 ‘AA’

KB손해보험은 5일 KB손보 중국법인이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독회)가 실시한 2018년도 중국보험회사 고객서비스 평가에서 ‘AA’ 등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KB손보 중국법인이 취득한 고객서비스평가부문 ‘AA’ 등급은 중국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계 보험사로는 유일하게 취득한 최고 등급이다. 중국 전체 87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AA’ 등급을 취득한 중국 손해보험사는 PICC, PING AN, CPIC 등 5개에 불과하다.

/김희주 기자

딥러닝 한계 봉착... 세계 석학들 “새 AI 알고리즘 필요”

삼성 AI포럼 2019

세계 석학들 현황공유·미래전망
범용 AI 필요성에 의견 모아져
포스터 세션 마련 우수 논문 전시

삼성전자는 5일 서울 R&D 연구소에서 열린 '삼성AI포럼 2019'에서도 AI 분야 글로벌 세계 석학들을 통한 현황공유와 미래 전망을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기존 딥러닝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범용인공지능(AGI)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기조연설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노아 스미스 교수와 카네기멜론대학교 압히나브 굽타 교수가 맡았다.

노아 스미스 교수는 '실험적 자연어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순환신경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이 가진 취약점을 설명하고, 합리



노아 스미스 교수가 '실험적 자연어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순환신경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적인 순환신경망(RNN)을 새로운 모델로 소개했다.

압히나브 굽타 교수는 '시각/로봇 학습의 규모 확장과 강화 방안' 강연을 통해 지도 학습 한계를 넘어선 대규모 자기 시각 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미래에 이진트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뉴욕대학교 조안 브루나 교수 역시

AGI(인공범용지능) 실현을 위해 돌파해야 하는 기술로 알려진 그래프신경망(GNN) 연구 성과와 개인화 등 활용 연구에 대해 견해를 발표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바이샬벨 교수는 AI를 사람과 일상에서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인간 지식과 데이터 기반 학습 통합 방안을 소개하며 AI 활용 연구 현황을 밝혔다.

오후에는 두 트랙이 동시에 진행됐다. 각각 '비전과 이미지'와 '온디바이스, IoT와 소셜'이라는 주제다.

비전과 이미지 트랙에서는 미국 UC샌디에이고대학교 누노 바스콘셀로스 교수가 '딥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인식과 딥러닝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삼성전자 모스크바 AI센터를 맡고 있는 빅토르 렘피츠키가 '사실적인 3D 텔레프레젠텐스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추적 및 합성 기술'을, 토론토 AI센터 마이클브라운이 '기존 모바일 기기 영상 캡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연구 동향과 딥러닝 기반의 새로운 이미징 파이프라인'을 강연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알렉스스윙 교수도 '데이터의 일부분을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유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해 활용할 수 있는 AGI 기반의 객체 인식 및 상황 묘사 기술'을 발표하며 미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을 알

렸다.

'온디바이스, IoT와 소셜' 트랙에서도 삼성전자 캠브리지 AI센터 니콜라스 레인이 '범용인공지능 시대에서 모바일 임베디드 기기가 온디바이스 컴퓨팅을 위해 극복해야 할 딥러닝 기술'을, 몬트리올 AI 센터 스티브 리우가 '딥러닝과 와이파이 기반 고해상도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방식'을 강연에 올리며 삼성전자의 AI 개발 노력을 짐작케 했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토마스 멜로디아 교수가 연단에 선 '5G와 IoT 무선 시스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추론 및 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과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의 '컴퓨터 연산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화형 모델링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학계 동향도 살필 수 있었다.

한편 삼성 AI포럼 2019는 강연뿐 아니라 포스터 세션을 마련해 국내 대학과 대학원이 발표해 글로벌 주요 학회에서 선정된 우수 논문을 선별해 전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제2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 참가한 제네시스 부스 전경

현대차, 中서 친환경·미래차 선배

中 국제수입박람회

단독부스 마련하고 미래 콘텐츠 소개

현대자동차그룹은 5일 중국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린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친환경·미래차 기술력과 다양한 차세대 모빌리티를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10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았다. 작년 박람회는 누적 관람객이 80만명을 넘어서는 등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3개 브랜드가 모두 참가해 각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전시를 기획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 중 최대 규모라고 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는 행사장에 총 65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력과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였다.

현대차는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전기차(EV) 비전 콘셉트 '45'도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했다. 수소전기차 '넥소'와 수소차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넥소 절개차',

'연료전지 시스템 목업'과 함께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 '넵툰' 역시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고성능차와 친환경차 기술력이 집약된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 등 차세대 모빌리티도 함께 전시했다.

또한 이(E)-스쿠터, 이(E)-바이크 등 친환경 모빌리티 장비와 함께 상향 작업용 착용 로봇 '넥스', 의자형 착용 로봇 '체스' 등 웨어러블 로봇도 중국에 소개했다.

400㎡ 규모의 전시관을 꾸린 기아차는 전기차 기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쿠페 콘셉트 '퓨처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퓨처론은 도어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라인이 강조된 모델로, 장식적 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구조의 미'를 표현했다고 기아차는 소개했다.

제네시스 역시 4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브랜드 디자인 방향성과 친환경 비전을 소개했다. 제네시스는 수소연료전지 SUV 콘셉트카 'GV80 콘셉트'와 올해 3월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한 전기차 기반의 프리미엄 씨티카 콘셉트카 '민트 콘셉트' 등을 전시하며 친환경 비전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그랜저, 첫날 사전계약 1만5973대 '신기록'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로 이례적인 기록
신차급 변화로 고객 기대감 부응

신차급 변화를 달성한 '더 뉴 그랜저'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현대차는 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현대차 대표 플래그십 세단 더 뉴 그랜저의 첫날 계약 대수가 1만7294대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가 보유하고 있던 역대 최다 첫날 사전계약 대수 1만5973대를 무려 1321대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 최다 사전계약 기록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써 더 뉴 그랜저는 우리나라 역대 최다 사전계약 기록(첫날)을 보유한 모델로 등극하며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했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실내 모습.

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가 단 하루 만에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신차급으로 대폭 향상된 상품성으로 변화된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감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더 뉴 그랜저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현대차만의 보석모양

패턴을 사용해 헤드램프와 그릴을 통합시켜 독창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면 디자인으로 그랜저만의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내장 디자인 역시 동급 최고 수준의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경계가 없는 심리스 스타일로 통합시키고, 고급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넓고 길게 뻗은 수평적 디자인을 적용해 최근 고객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적극 반영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KT, 5G 기반 자율주행차 함께 만든다

자율주행차 설계·개발 MOU 체결
사업 확장 위한 시장 개발도 협력

현대로템이 KT와 손을 잡고 5G 기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KT와 '5G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관계플랫폼 개발 및 사업을 위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로템과 KT는 5G 통신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설계 및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관계플랫폼과 원격운용체계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방, 민수 등 자율주행 차량 사업 확장을 위한 시장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대로템은 KT의 원격·자율주행 차량용 5G 통신 인프라와 관

제플랫폼 데이터 규격을 검토하고 현대로템의 자율주행 차량에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KT는 원격·자율주행 차량용 5G 통신 요구사항 분석을 비롯해 관련 인터페이스 설계와 자율주행 관계플랫폼 데이터 규격에 대해 현대로템에 컨설팅하고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국내에서 쌓은 포인트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 해외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싶다

손님의 기대
하나하나를 모아
더 세계적인 금융을 만듭니다

손님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금융의 능력도 커져야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세계적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



해외에서도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자동차테마, LPGA 등 BMW코리아가 적자에도 돈 쓰는 이유

‘BMW=즐거움’ 돈 보다 브랜드 가치… 경험 통한 소통

드라이빙센터 확장에 125억 투자
골프 대회 개최해 선수 등용문 역할

BMW그룹코리아(BMW코리아)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과 소통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고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가족단위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히 자동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장르와 연계해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다.

◆BMW ‘통큰 투자’ 지속

BMW코리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테마 문화시설로 자리잡은 BMW 드라이빙센터는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드라이빙 센터를 운영하며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라이빙센터는 BMW가 2014년 77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이다. 다양한 자동차 문화 전시, 체험 공간, 어린이



BMW 드라이빙 센터 트랙 주행.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이다. 수도권 관광명소로 꼽히면서 출범 5년 만에 85만명이 다녀갔고, 방문객 86%가 만족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125억원을 투자해 드라이빙센터를 확장 중이다. BMW코리아는 드라이빙센터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고성능 차량을 다루는 심화 트레이닝 단계인 ‘BMW M 레벨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트랙 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현재 BMW 그룹 내에서 레벨 2 인증 트랙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단 2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BMW코리아는 지난 10월 24일

부터 26일까지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 국제 골프대회이자 최초의 글로벌 여성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9’를 개최하며 국내 스포츠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6만명 이상의 갤러리가 방문했으며 전 세계 170개국에 생중계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KLPGA 정규투어 대회를 개최하여 실력 있는 국내 골프 선수들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했다.

◆MINI 고객 간 유대감 형성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는 고객들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매



MINI 유니타이드 MINI 퍼레이드 모습.

년 마련한다. 바로 ‘MINI 유니타이드’ 행사다. 올해로 브랜드 탄생 60주년을 맞은 MINI는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지난 2일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서 ‘MINI 유니타이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2200여 명의 MINI 팬들이 참석했다. 특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MINI 플리마켓’부터 에버랜드와의 이색 콜라보를 통해 탄생한 ‘MINI 사파리 스페셜 투어’와 ‘퍼레이드’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에버랜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난 10월 초부터 MINI 소유자들이

모집해 70여개로 구성된 자동차 상점을 운영 ‘MINI 플리마켓’이다. ‘MINI 플리마켓’은 지난 2014년 시작됐으며, MINI 오너들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평소 본인이 팔고 싶었던 문건을 가져와 판매한다. 수익금 일부는 BMW코리아 미래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최근 새롭게 출시한 뉴 MINI 클럽맨 시승 신청 이벤트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MINI 코리아는 행사의 수익금을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연료전지 전문사 시대… ‘한국퓨얼셀’

포스코에너지

발전사업·제조업 경쟁력 강화

포스코에너지가 5일 연료전지 전문회사인 ‘한국퓨얼셀’을 공식 출범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자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법인을 신설했으며, 지분 100%를 보유한다. 신설법인은 연료전지 제조,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보수(O&M) 등 기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분할로 인해 기존에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한 일부 발전사들이 사업에 차질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 포

스코에너지는 “고객사 동의 없는 계약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사업과 제조업이라는 서로 다른 구도의 두 사업 모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연료전지 전문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도 지난달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산퓨얼셀’을 설립했으며, SK건설은 미국 블루에너지와 연료전지 생산·공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최근 업계에서 연료전지 전문회사 탄생이 잇따르고 있다.

/양성운 기자

후판값 오를까… 현대제철 실적 돌파구 기대

매출 전년비 3.6%·영업익 66.6% ↓
철광석 가격 상승, 건설시황 둔화 영향

올해 3분기 실적 하락을 겪은 현대제철이 후판가격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며 연구개발에 힘쓰는 등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5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재 후판가격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1톤당 2만~3만원대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철강·조선업계는 매년 반기마다 회사별로 선박 건조에 쓰이는 두께 6밀리미터(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 후판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에는 각각 5만~7만원의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동결됐으며 하반기 협상은 지난 7월부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473억원, 영업이익 34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6.6%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적 하락을 맞 본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 인상이 간절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은 철강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의 상승과 건설시황 둔화에 있다.

철광석 가격은 올해 초 브라질 댐 붕괴사고와 호주 사이클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한 때 12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 최근 86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 건설시황 둔화로 철근과 형강 판매가 감소해 단가가 하락한 것도 이유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요인도 있다. 과잉생산 감축 일환으로 철강업계 구조조정에 나선 중국은 근래 무역전쟁 장기화, 경기둔화에

대응할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다시 철강 생산을 늘리고 있다.

세계 조강생산량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철광석 가격강세를 지속시키고 철강 가격상승 요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현대제철은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전기차 중장기 생산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급속분리판 2공장 증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성능 제품 개발에도 주력해 80kg급 고연신 소재, 100kg급 병연도금재 등 고강도·고성형을 구현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이 같은 노력에도 실적하락세는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철강 경기가 내년 1분기까지 저점을 예상했지만,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460억 규모 KTMO-셀 체계개발사업

한화시스템, 첨단공격자산 통합관리
2022년까지 시제개발 진행 계약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460억원 규모의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24시간 무중단 운용되는 임무중심체계로, 탐지체계로부터 수신한 적 탄도탄 항적 정보에 대한 처리, 위협 평가와 무장 할당의 교전 통제, 발사 위치정보 기반 공격 작전 지원 등을 수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하에 한화시스템이 22년까지 시제개발을 진행하며, 특히 중양집중형 작전 구현을 위해 최

신 전송데이터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레이다 등 주요 탐지 자산과 천공II, 패트리엇,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공격 자산을 통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한반도 주변 위협 및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전술정보통신(TICN), 방공지휘통제경보, 합동전술데이터링크(JTDL) 등의 체계 개발을 통해 입증해온 지휘통제통신(C4I) 시스템 개발·상호 연동 역량을 중심으로 40년 합정 전투체계 개발로 입증한 교전 통제 기술력과 ICT부문의 시스템통합 역량도 적극 활용했다.

/정연우 기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루마다’ 혁신 전략 제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이 고객들에게 데이터 혁신 가속화 전략을 제시한다.

HIS는 오는 1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클라우드에 세션 2019’에 참가해 펜타호와 ‘루마다 포트폴리오’ 핵심 기술과 산업현장 활용 방

안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루마다 포트폴리오는 HIS가 2017년 산업 IoT 플랫폼으로 출시한 데이터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이다. 예지와 클라우드 관련 새로운 기능을 지속 추가해 왔으며,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가트너에 IoT 플랫폼 부문 ‘비저너리’ 등급에 선

정되는 등 가치를 높이고 있다.

HIS는 루마다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현장 데이터 혁신 사례를 이끌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 자동화와 AI를 활용해 현장에 운영 최적화 및 예측 정비, 품질 개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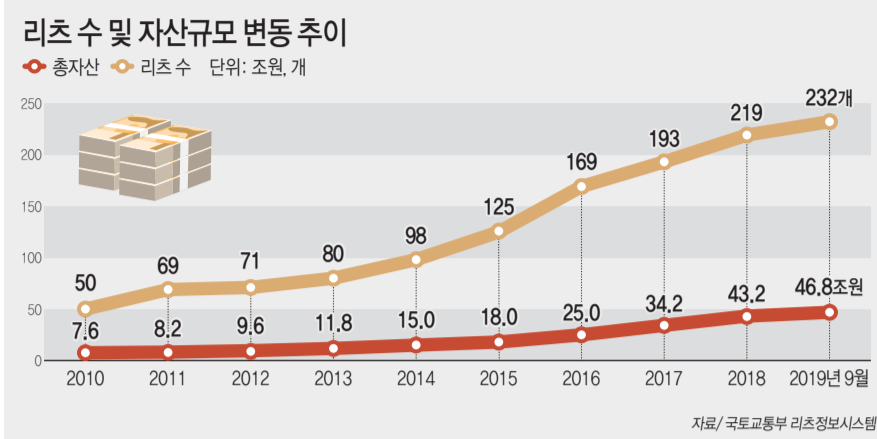
/김재우 기자 juk@

롯데리츠 상장 대항행... NH 등 7개사 증시노크 서두른다

롯데, 시가총액 1.1조원 기록 당초 예상액 7000억 '홀찍'

NH농협리츠운용 이달 상장 계획 **제이알투자운용** 내년 상반기 출격 **하나자산·KB부동산신탁** 리츠자산 확장... 유동화 추진중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는 대형 리츠 주식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주식시장 상장 리츠가 돌풍을 일으키자 후속 주자들도 시장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모양새다. 리츠 전담팀을 신설하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선발주자는 롯데리츠(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지난 4일 종가 기준 1조1212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당초 증권가가 예상했던 7000억원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연간 6%대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제시한 마케팅 전략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리츠 역시 상승세는 뚜렷하다. 신한알파리츠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4일 종가 9030원으로 올해 초 가격 6000원 초반을 크게 웃돌았다. 이리츠 코크렙 역시 7320원으로 연초보다 크게 상승했다.

◆ 리츠 시장, 증권사들 대응책 마련
리츠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분명해지자 증권사들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이달 들어 리츠 전담팀을 새로 출범했다. KB증권 관계자는 “두 달여간 부동산 관련 부서들과 논의를 거친 후에 지난 1일 리츠 전담팀을 신설했

다”고 5일 밝혔다. 리츠 관련 영업과 기업공개(IPO)를 전담하는 팀이다. 시장 활성화에 따라 가속화될 증권사 사이의 리츠 IPO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오래전에 증권사 최초로 리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기업금융(IB)1 부문 내에 리츠 전담조직인 공모리츠금융팀을 신설했다. 대신증권의 계열사인 대신자산신탁도 최근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산관리업(AMC)을 하기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증권사들이 리츠 시장

성장세에 동감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롯데리츠 때문에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성장했다. 부동산펀드에서 리츠쪽으로 투자처 흐름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전담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리츠 IPO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7개 리츠 대기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무섭다. 롯데리츠의 흥행을 본 대형 리츠들이 상장 고삐를 당기고 있다. 리츠협회의 시장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이 예정된 리츠는 7개에 이른다.

가장 먼저 NH농협리츠운용의 NH프라임리츠가 빠르면 이달 내 상장할 계획이다. 실물자산을 편입한 리츠도 검토했으나 결국 재간접 공모 상장리츠로 전환했다.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펀드나 사모리츠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NH농협리츠운용 관계자는 “수익증

권만으로 공모 펀드를 구성했다”며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해를 넘기기 전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5~6%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재간접 공모리츠인 이지스밸류리츠 역시 이르면 올해 말 상장을 노리고 있다. 이지스밸류리츠는 서울 태평로빌딩과 제주 조선포호텔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내년에 상반기엔 제이알투자운용이 출격한다. 국내가 아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가 자산에 포함됐다. 하나자산신탁이나 KB부동산신탁도 리츠 자산을 확장해 공모 리츠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츠 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저금리로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리츠 같은 고배당 주나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초고성장주에 돈이 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아만다 론칭 이벤트 시즌2

신한금융투자는 신한 아만다 론칭 이벤트 시즌2를 진행한다. ‘신한 아만다’ 계좌는 종합자산관리(CMA)계좌를 기반으로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신용거래가 한 계좌에서 가능하며 투자 후 남은 돈은 자동으로 환매 조건부채권(RP)에 투자되는 대표 온라인 계좌이다. 신규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에게는 세전 연 5% 특관RP(3개월, 최대 100만원) 쿠폰과 신용이자 연 1%(100일)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아만다 서비스 가입고객에게 벤츠 C200 응모권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 시즌2에서는 주식거래 이벤트, 자산증대 이벤트를 시행한다.

/손염지 기자



삼성증권 고객자문단 1기 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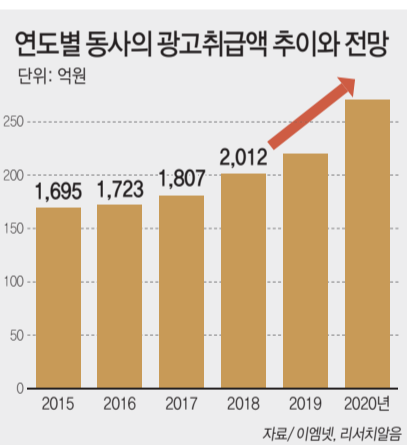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모집한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대고객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자문단 1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증권 고객자문단은 주식,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삼성증권 거래 고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멤팝(mPOP)’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송태화 수습기자

온라인 광고 국내 1위... 연초대비 주가 110% 상승

株라쿨라의 종목

온라인 광고 대행사 이 엠 넷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파트너사 3년간 인력 24%, 매출 26% 증가



“수백만이 구독하는 유튜버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광고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광고주들은 퍼포먼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찾기 시작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5일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이엠넷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엠넷은 2000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다.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위임 받아 검색 광고(Search Advertisement), 디스플레이 광고(Display Advertisement) 등을 진행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최근 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신규

온라인 매체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다양화된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어느 곳에 마케팅을 해야 효율적인 지, 실제 예약·결제·회원가입 등 퍼포먼스가 발생하는지 등 광고주에 적합한 광고 매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광고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이엠넷의 경쟁력은 누적 광고 취급액이 국내 1위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의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선정되

다양한 광고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자회사 이엠넷재팬(eMnet Japan)의 실적 성장세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본 내 주요 매체인 구글과 야후를 중심으로 광고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10% 상승했다. 현재 6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엠넷재팬의 시가총액은 680억원 수준이다.

최 연구원은 “일본 광고시장 내 온라인 광고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8년 31%까지 확대되고, 2020년에는 150억 달러 규모로 전체 34%까지 확대 될 것”이라며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높고, 엔화 강세, 도쿄올림픽 수혜 등 시장환경이 우호적이다”고 말했다.

광고 대행사의 또 다른 경쟁력은 ‘인적자본’이다. 최 연구원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는 기획, 데이터 분석, 성과 측정 등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실무 능력에 따라 효율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엠넷은 2015년 300명 수준에서

2018년 370명으로 인력을 24% 이상 늘렸다. 해당 기간 매출 역시 26% 상승했고, 고객 광고 취급액(월 5000만원 이상) 비중도 28%에서 59%로 크게 확대됐다.

최 연구원은 “올해 이엠넷의 인력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회사를 포함한 동사의 직원수는 410여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한 올해 이엠넷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2%가량 늘어난 354억원, 6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5억원, 7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최 연구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와 일본 도쿄 올림픽 수혜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알음은 이엠넷에 대한 긍정적인 추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43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예상실적에 광고 업종 평균인 주가수익비율(PER) 15배를 적용한 결과다.

/손염지 기자 sonumji301@

가좌역 도보 5분 ‘초역세권’... 서울도심 이동 편리

금호산업 ‘DMC 금호 리첸시아’ 5개동 266가구 이달 일반분양



금호산업은 이달 중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금호 리첸시아’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 일대에 선보이는 ‘DMC 금호 리첸시아’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5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16~84㎡, 총 450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2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서울역, 공덕, 용산 등 서울 주요 도심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등 3개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가깝다.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성산로 진입이 용이

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현재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과 준공 막바지에 있는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가 개통되면 교통망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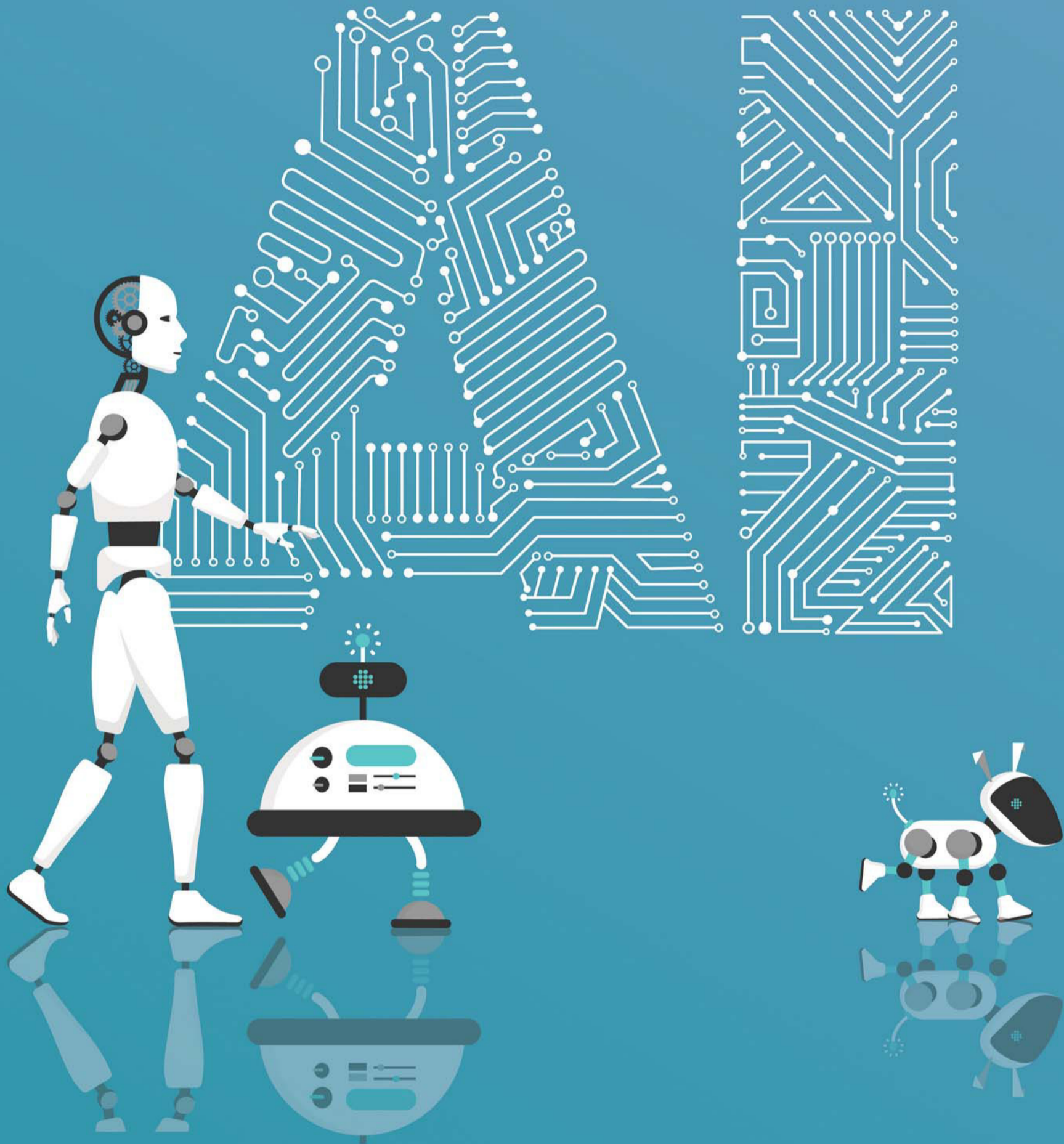
금호산업 분양소장은 “가좌역 초역세권 입지에 상암DMC,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중심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우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6월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metro

metro 경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2019년 11월 21일 (목) 09:00~11:20분 한국프레스센터

문의 및 접수: forum@metroseoul.co.kr 02)721-9826

LCC 넘어 '빅2' 항공사로 애경, 160대 거대 익룡 비상할까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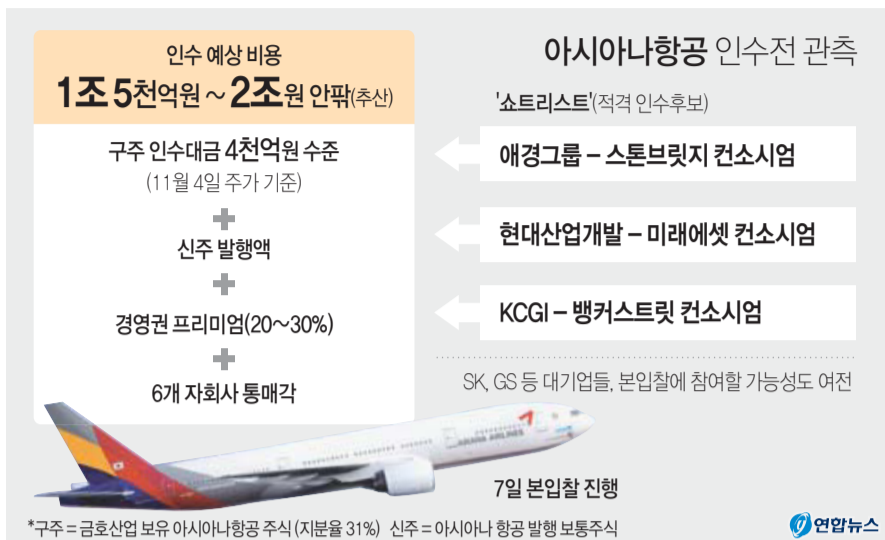
〈翼龍〉

경영능력 제주항공으로 이미 검증 인수시 국제선 45% 국내선 48% 점유 "대기업들 막판에 뛰어들 가능성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일하게 항공운송산업 경험이 있는 애경그룹이 이번 인수전을 통해 점유율 1위 항공사로 도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오는 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입찰에는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애경그룹 컨소시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HDC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리트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KCGI 컨소시엄) 등이 참석한다.

애경그룹 컨소시엄과 HDC 컨소시엄은 적격 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KCGI 컨소시엄은 아직 전략적투자자(SI)를 찾지 못한 상태



다. 특히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저비용 항공사(LCC) 1위로 키워낸 노하우를 가진 만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점유율 1위 항공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애경그룹은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견제를 뚫고 2006년 취항한 제주항공을 13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CC로 성장시키며 항공산업 경영능력을 이미 검증 받았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자회사 등을 포함해 16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각 사의 여객통계를 기초로 각 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국제선 45%, 국내선 48%로 국내 최대 항공그룹이 된다. 현재 국내 항공여객점유율은 한진그룹(대한항공, 진에어)이 1위,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2위, 애경그룹(제주항공)이 3위이

며 이번 인수전에서 애경그룹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 1위 그룹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금호산업은 본입찰 후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체결 등을 거쳐 가능하면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잠재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매각가는 신주발행액 8000억원을 포함해 구주인수, 경영권 프리미엄 등까지 감안하면 1조 5000억~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수 후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조 5889억원에 달한다.

자금력 면에서는 HDC 컨소시엄이 앞서지만, 그룹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애경그룹의 경영능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취항 당시에도 과당경쟁과

서비스 저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랐고 각종 약제가 겹쳤지만,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LCC 1위로 키워냈다.

애경그룹 측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제주항공을 운영해온 2년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면, 더욱 경쟁력있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유통사업과의 시너지를 더한다면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자금력 부족도 해소했다. 지난 10월 21일 애경그룹은 운용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잡으면서 자금력 문제를 불식시켰다.

재계 한 관계자는 "2파전으로 좁혀졌지만, KCGI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끌고 들어오느냐도 이번 인수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기 인수 후보로 꼽혔던 SK, GS 등 유력 대기업이 막판에 뛰어들 가능성도 남겨둬야 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다이슨이 미용실을?... 모터혁신 헤어기기에 "3D 프린터로 국내 제조업에 혁신을"

르포 뷰티랩 팝업스토어

다이슨 제품 우수성 알리기 나서 열 대신 바람으로 모발손상 최소화

다이슨은 자타공인 엔지니어 회사다. 설립자를 비롯해 직원 대부분이 엔지니어로 구성됐으며, 더 효율적인 모터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다이슨이 갑자기 미용실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서울 한남동 '사운드스 한남'에 자리한 '다이슨 팝업 데모 스토어 뷰티랩'이다. 본사 엔지니어와 헤어 전문가들을 초빙해 10개월 동안 모발 건강 진단과 스타일링 팁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이슨이 뷰티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은 것은 아니다. 다이슨은 네이버 사전 예약을 받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익을 위해 팝업스토어를 기획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다이슨은 수준 높은 모터 기술력으로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고민해왔다.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와 에어랩 스타일러도 바로 그 중 하나다. 뷰티랩은 다이슨의 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다이슨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뷰티랩의 첫번째 서비스는 헤어 카운셀링 프로그램인 '헤어 맵핑 애플리케이션'이다. 현미경으로 모발을 찍어 표면피층과 모피질, 모수 상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주는 내용이다.

다이슨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스캐닝 전자 현미경을 따로 공수하고 현지 엔지니어도 모셔왔다. '다이슨 모발 진단서' 형태로 고객에 무료 제공한다. 단,



다이슨은 뷰티랩에 전자 현미경을 공수하고 본사 엔지니어를 초청해 한 달간 헤어 맵핑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다이슨코리아



다이슨은 스타일링 전문가를 통해 다이슨 제품을 활용한 스타일링 방법도 전수해준다.

연건상 11월까지만 운영한다.

다음으로는 전문 헤어 스타일러의 헤어 스타일링 세션이 기다린다. 슈퍼소닉과 에어랩 스타일러를 이용해 모발 손상 없이 더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세션 사이에는 다이슨 헤어케어 제품이 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지 설명해주는 공간도 마련됐다. 강한 열 대신 바람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스타일링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뷰티랩의 특별함은 또 있다. 바로 각

인 서비스다. 전세계에서도 뉴욕 등 일부 매장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슈퍼소닉이나 에어랩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영어만 지원되며, 3글자까지 새길 수 있다.

뷰티랩은 그 밖에도 대표 제품인 선풍기와 공기청정기, 조명 등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한다. 지난 8월 처음 공개한 에어랩 스타일러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개인용 공기청정기 퓨어쿨미 화이트/푸시아 컬러 모델을 200대 한정 독점으로 들여왔다.

다이슨 헬스 및 뷰티 카테고리 부사장인 폴 도슨은 "뷰티랩에서 제공하는 헤어 카운셀링 프로그램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스캐닝 기술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이슨 데모 스토어 뷰티랩은 다이슨 헤어 과학의 전문성과 헤어 관리 기술의 집약체로, 다양한 모발 종류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해하고 다이슨의 모발 관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폼랩 기자간담회

내년 LFS 방식인 '폼3'·'폼3L' 공급

3D프린터의 글로벌 선두기업 폼랩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폼랩은 3D 프린팅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7개 국가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5만대 이상 3D 프린터를 출하해 SLA 부문 전 세계 1위 업체이며, 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 총괄 사장이 데이비드 탄과 함께 한국지사 김진욱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폼랩은 한국이 GDP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5위 강국이라고 평가하고, 3D 프린터가 국내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뉴발란스를 비롯한 업체들이



폼랩코리아 김진욱 지사장. /폼랩

폼랩 3D 프린터로 제조 체계를 더욱 간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예를 들며, 국내에도 3D 프린터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폼랩이 내세운 무기는 'LFS 3D 프린터'다. 액체 수지를 완벽하게 전환해주는 광경화성수지조형(SLA)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다. 플렉서블 탱크를 장착해 적은 힘으로도 품질과 현실감을 높여주며, 선형 조명으로 안정적인 제품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폼랩은 내년 국내에 LFS 방식인 '폼3'과 '폼3L'을 주력으로 공급하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메일도 카카오톡으로... 베타서비스 시작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메일'을 베타서비스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계정 기반의 새로운 메일 서비스인 카카오메일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더보기탭의 '메일' 버튼을 통해 진입, 신규 메일 주소를 생성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메일은 스마트 분류함을 통해 청구서, 쇼핑, 소셜, 프로모션 등의 메

일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불필요한 메일은 7일이 지나면 휴지통으로 이동되는 등 효율적인 메일함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상대를 관심 친구로 설정해 모아보기가 가능하며, 관심 친구로부터 메일 수신 시 카카오톡 채널 '조르디'를 통해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메일 베타서비스는 iOS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v.8.6.0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최악’... 일하는 국회법 0% 이행

법안심사소위 2회이상 실시한 곳 10월 한달간 정무위원회 1곳 그쳐
계류법안 1.6만건, 내년 5월 폐기

국회 상임위원회별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이 지난달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5일 국회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현황 분석 결과, 10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정무위원회 한 군데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 각각 한번에 불과했다. 전체 법안심사소위 25곳 중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뒤늦게 도착해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여야는 기초와 입장차가 커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공방을 벌였고 야권 일부는 상임위 전체회의의 보이콧(불참)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달인 6월 규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7월에도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졌다. 이후 9월에는 1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비쟁점 법안 164



지난 8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현 간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 2일 법안을 처리한 후 90일만이다.

법안 대량 처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6000건에 달한다. 내년 5월 29일이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이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회는 이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각당이 국회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고성·반말·삿대질 등을 하면서 다시 갈라졌다. 여야 3당 실무진은 이날 오후 첫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사과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2020년도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 심사를 끝내면 의정 활동도 사실상 접는다.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총선거단 첫 회의를 열고, 한국당은 전날 총선거단을 출범하면서 ‘총선 정국’ 시동을 걸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이 뒤늦게 ‘일하는 국회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정 활동 막바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에 4.7억 무단사용

감사원, 대법원 재무감사 발표
해외연수 법관에 재판수당 지급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새로 취임하는 김명수 대법원 장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예산 약 4억여원을 무단으로 가져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또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해외연수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재무감사’를 5일 발표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5월 국회에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000만원만 편성했다. 그

러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관사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리모델링 사업에 전용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 또는 전용한 예산이 총 4억751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당수 법원이 해외연수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 혹은 재판업무수당을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르면 국외 소재 대학교 등에서 해

외연수를 위해 파견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는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23개 법원이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6명과 법원공무원 56명에게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으로 2270만8870원을 지급했다”며 “이중 회수한 돈은 25만7140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부서와 회계 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회계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실무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5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하방압력 대비 정책수단 총동원”

조정식 의원, 17일 재정점검회의 개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여당·정부)은 올해 두 달간 하방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7일 재정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조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 등 비극적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생활과 건강, 안전, 복지 등 포용국가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여권의) 확장예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

난달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라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9위”라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조 의장 주장이다.

조 의장은 “경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런 상황에서 서민 지원 예산과 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야당이 예산 삭감 공세에 여념이 없는 데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석대성 기자

“내년 총선공천 과정 청년층에 방점”

민주당, 총선거획단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막말 이력을 철저히 검증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학사비리 의혹 등으로 돌아선 청년층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선거획단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되지 않도록 다수 의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기획단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아주 심하게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중요한 일을 못한 것이 매우 많다”며 “앞으로도 정치개혁법이나 검찰개혁법 등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켜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선거획단 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공정과 혁신,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겠다”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층을 방점에 둘 것을 예고했다.

/석대성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분할납부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다.

공단·금융결제원·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하였고, 전산 개발이 완료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육군, 군장병 1만5000명에 패딩점퍼 보급

한겨울 추위에서 장병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동계점퍼(패딩)가 11월 초부터 보급된다. 이번에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패딩형태로 동계 작전 및 경제활동을 제외한 일반근무에 한해 착용된다.

본지가 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최전방GOP 사단인 3·6사단에 보직된 전 ‘병’에게 지급된다. 다만 올해 12월 전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동계점퍼는 약 1만

5000벌 정도로, 군 당국은 향후 전방사단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전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안팎에서는 장병근무여건 향상차원에서 이번 동계점퍼 보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동계점퍼는 화학생유로 만든 솜을 충전제로 사용하고, 원단의 결합방식을 바늘이 아닌 씬실링(열을 이용한 접착)으로 채택했다. 또한 알루미늄 코팅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학종 평가서 자사고·특목고에 특혜... 대대적 수술 예고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조사 결과 학종 평가시간 짧아 부실평가 우려 추가 감사, 가이드라인 내실화 진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대학들이 대입 학생부종합 전형(학종) 서류평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자를 우대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금지되는 3불(不) 정책 중 고교 등급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입시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각 대학의 학종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내신 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와 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높았다. 이는 내신 등급이 일반고보다 낮은 자사고·특목고 출신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미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또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 학생부나 대학이 고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기재가 금지된 정보가 편법적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이나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으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직원이 전형 과정에서 회피·제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의 학종 평가시스템 상 서류평가 시간이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나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입 전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13개 대학 모두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다. 교육부는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평가의 세부요소와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 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학종에 대한 대규모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특혜를 받는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발표할 자사고 등의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 성장세' 삼양,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삼양식품그룹은 2019년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채 채용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 회사는 삼양식품을 비롯한 5개 회사이며, 모집분야는 ▲생산 ▲품질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구매 ▲인사 ▲총무 ▲법무 ▲홍보 등이다.

전형은 서류, 1차 면접(실무진), 2차 면접(임원진) 순으로 진행된다. 각 전형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되며, 최종 합격인원은 오는 2020년 1월 중순경 입사하게 된다.

서류 접수 및 기타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양식품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삼양



삼양식품그룹이 2019년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삼양식품

식품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열정 가득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해외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임직원 수가 2015년 1107명에서 2019년 10월 말 기준 1629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이석묵 국민대 교수 바이오의약품 대상

국민대학교는 응용화학부바이오 의약전공 이석묵 교수(사진)가 지난 1일 '제2회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에서 대상(보 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바이오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GE healthcare life science가 후원하는 상이다.



/한용수 기자

이석묵 교수는 현재 대장암 치료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비투스(물질명 세특시맵)이 듣지 않아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특시맵 저항성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대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윌리엄 케일린 교수 서울대 초청 특강·간담회

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가 오는 8일 2019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윌리엄 케일린(William G. Kaelin) 교수를 초청해 강연과 간담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케일린 교수는 세포가 어떻게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지, 특히 Von Hippel Lindau (VHL) 암억제인자가 산소 농도 감지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강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26동 B101호에서 진행되고, 이어 오후 2시 500동 1층 목암홀에서 서울대 학생들과 '과학자로서 삶이나 연구에 대한 조언' 등 자유로운 주제의 간담회를 갖는다. 관심있는 학생, 연구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가톨릭대 베르살디 추기경 초청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학교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신학대학대강당에서 사목 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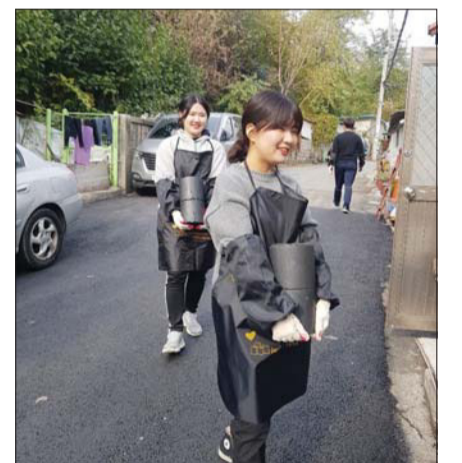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을 주제로, 가톨릭계 대학이 교황청립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교황청 교육성장관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이 '교회 대학교와 대학원들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 교회법 분야에 있어서 그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아시아티코코신부(교황청립 산토토 마스대 교회법대학원장) ▲전영준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한영만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사랑의 연탄 나눔... 1200장 배달

한성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등 30여 명이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상계3·4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가정에 연탄 400장씩 총 1200장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한성대 사회봉사단, 한성대 해외봉사단을 비롯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기획한 한성대 교수봉사회장 이재득 교수(스마트경영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트랙)의 한양대 산업공학과 동문 모임인 한양대 성산회 소속 전직 교수 등도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서울 상계동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성대

한남대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사업 선정

총 3년 동안 11억여원 지원 이공계 학부생 중심 팀 구성

한남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연간 3억6000만원씩 3년 동안 1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석·박사를 그룹리더로 하고 이공계 학부생 중심으로 실전문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남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소재&바이오 영역(화공신소재공학과, 생명시스템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산·제조 영역(기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광선서공학과) ▲I.T·전자 영역(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

과) 등 3개 영역 실전문제연구팀과 자율선정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전문제 수요발굴을 위해 산학협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중소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한남대는 학생들의 실전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기업이 원하는 전문 융합인력을 양성하도록 설계했다.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취업에 질과 양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

한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학생의 취업률 상승은 물론 대전지역의 3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청주대 전문 특허 워크숍서 33개 출원 성과

청주대학교는 재학생의 기술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능력 함양을 위한 '2019 전문특허 워크숍'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청주대 미래창조관(학생창업관)에서 재학생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청주대 전문특허 워크숍은 1인 1 특허 출원을 목표로 진행됐다. 워크숍 운영 결과 특허 출원 31개, 상표 출원 1개,

디자인 출원 1개 등 모두 33개 출원 성과를 얻었다. 청주대는 지난 2016년에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SEIP를 자체 개발해 인식전환(창업동기부여), 기업가정신 함양(마인드셋), 시제품개발 및 검증 방법의 이해, 실전창업 등 4단계에 필요한 20여개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 창업경진대회 및 시제품 등 성과 전시회를 이달 개최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새로운 시작!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A New **새출발** Beginning

천년 신라, 빛으로 살아나다!

주요 Big4 콘텐츠

<p>BIG 1 신라를 담은 별 Lumina Night Wal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맨발 전용 둘레길 _ 비움 명상길(주간) • 한국 최초의 '루미나 나이트워크' _ 신화와 전설이 이끄는 환상적인 빛의 탐험(야간)
<p>BIG 2 찬란한 빛의 신라 Timeless Media A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첨단 미디어 아트로 금관, 석굴암, 첨성대 등 경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재현
<p>BIG 3 신라천년, 미래천년 Convergence Time Tr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타워에서 펼쳐지는 1,300년 전 서라벌로의 가상여행
<p>BIG 4 인피니티 플라잉 Infinity Fly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최초로 로봇팔(Robot Arm)과 3D 홀로그램이 접목된 판타지 공연

※ 행사기간 중에 평일, 매 주말 국내·외 저명한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엑스포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 태풍피해성금을 내신 분들은 행사 중 입장료를 면제해드립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만 원 이상 내신 분들에 한합니다.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10.11.(금) - 11.24.(일) 경주엑스포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최 : 경상북도, 경주시 주관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스무살우리' 2기 발대식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청년 아이디어 랩(Lab) '스무살우리' 대학생 홍보대사 2기 발대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2기는 4개월 동안 20대가 선호하는 마케팅 방법과 은행 브랜드 홍보 방법, 세대 공감 마케팅 방법 등을 기획하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활동을 통해 스무살 젊은이의 참신한 생각을 많은 이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대학생 30명 및 은행 주요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에쓰오일, 저소득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에쓰오일이 사랑의 연탄나눔기에 나섰다. 에쓰오일은 5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연탄 5만장을 기부하고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개미마을에서 임직원들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사진)는 임직원 자원봉사단 60여명과 함께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십여



가구에 200장씩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나머지 연탄은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이날 전달받지 못한 전국 저소득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



SPC그룹, 국내 최초 GRLC 베스트파트너상 수상
SPC그룹은 5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레스토랑 리더십 컨퍼런스(GRLC)'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올해의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키팅 Winsight LLC 식품서비스그룹 대표(왼쪽부터), 허진수 SPC 그룹 글로벌 BU장, 조 폴락 Technomic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동아제약, 동대문서 염색 봉사활동
동아제약은 지난 4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 봉사활동 '비겐어게인(Bigen Again)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비겐어게인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젊음을 되찾아 드리기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료 염색 봉사활동이다. /동아제약



시몬스, 이천시 나눔실천 공로 '경기도지사 표창'
시몬스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나눔문화 확산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몬스 침대는 자체 생산 시스템과 R&D 센터를 갖춘 '시몬스 팩토리움'과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가 위치한 이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와 호흡해 왔다. 시몬스 침대 김명훈 상무(왼쪽)와 이천시 염태준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몬스

짧은 턱과 치아마모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얼굴형에 비해 턱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무기력해보이거나 소극적인 인상을 풍기기 쉽다. 심하면 무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후천적으로 턱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가까운 치과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아마모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아마모의 원인은 ▲치아끼리의 과도한 교합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즐기는 습관 ▲잘못된 칫솔질 ▲이갈이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아끼리의 과도한 교합은 주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갈이가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증상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부터 바로 고치는 것이 중

요하다. 치료방법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선천적으로 턱뼈가 짧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턱뼈를 절골한 후 턱의 길이를 늘려주는 '턱뼈 교정술' 등의 성형수술을 시행해야 하지만, 치아마모가 원인이라면 치아 성형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아가 전체적으로 짧아진 경우에는 보철치료와 임플란트를 병행해야 하고, 앞니만 짧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이용한 앞니성형을 시행하면 된다. 라미네이트 시술은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치아교정과 달리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어 벌어진 치아나 빠뜨린 앞니를 치료할 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아나 잇몸에 문제만 없다면 단 하루 만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치아를 최소량만 삭제하기 때문에 치아 손실이 적고, 삭제한 면은 불소도포와 연마를 통해 충치 발생 우려도 줄여준다. 이때 치아의 모양과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해 디자인해주면 심미적인 목적과 기능적인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라미네이트는 심미 목적에 더 의미를 두는 시술이므로 ▲치아 위치 이상 ▲심한 충치로 인해 근관치료(신경치료)를 한 치아 ▲색의 부조화가 심한 치아 ▲외상으로 보철수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올세라믹(크라운)'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세라믹은 치아의 투명도와 색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을 지닌다. 치아 삭제량은 라미네이트보다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색이 변하는 기존 보철물과 달리 투명도가 높고 자연스러우며, 강도도 단단해 앞니 성형에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치아배열이나 치아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과절이나 충치, 염증 등으로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보철물이 변색 돼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 올세라믹으로 시술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음신치과 원장

구광모의 통큰 기부... 433개교에 공기청정기 1만대

(LG 대표)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제공 3년 간 필터·AS 서비스도 지원

LG는 최근 전국 433개 초·중·고교 등에 공기청정기 1만100대 무상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구광모 LG 대표(사진)는 올 초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직접 나서 공기청정기 1만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50억원에서 실제로는 약 220억원으로 50% 가까이 늘렸다. 향후 3년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와 AS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LG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파주 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퓨리케어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LG

가을철 다시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보급된 제품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AS309DWA)다. 최대 100㎡ 공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화해준다. LG전자는 이번 지원을 위해 창원 공장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지역경제정책관 김용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 ◆동의대 ◇IPP사업단장 △이상필 ◇LINC+사업단 기획부단장 △서진석 ◇LINC+사업단 사업부단장 △황진동 ◇빅데이터인공지능센터 소장 △김성희
- ◆오렌지라이프 ◇정보보호부장 △권욱빈
- ◆에너지경제신문 ◇금융부장직대 △송재석
- ◆뉴데일리경제 ◇건설부동산부장(경제정책부장 겸임) △이상택

부음

- ▲장현정씨 별세, 안석호(SK㈜) C&C 현장

- 경영실장)씨 부인상, 준영·다예씨 모친상 = 5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북 칠곡 현대공원. 031-787-1500
- ▲김선홍(전라일보 경제부장)씨 별세 = 5일 오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63-250-2451
- ▲심병호씨 별세, 심철무(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회무(뉴시스 전북본부 취재국장)·현재(보감 대표)씨·혜정(교사)·정선씨 부친상,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종소(대림산업 부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063-250-1443
- ▲조점석씨 별세, 이태영·경영·주영·선자·미자·미순(대일텍스타일 사원)·홍자·홍임씨 모친상. 오정열·노대용(대덕정밀 사장)·서해교·배영택씨 장모상. 권난희·김미경·유연옥씨 시모상 = 5일 오전,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7일, 벽제시립승화원. 02-2290-9442
- ▲조장목씨 별세, 조규영(에어서울 대표)씨 부친상, 강득환·김동국씨 장인상 = 5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02-2227-7500
- ▲이맹업씨 별세, 추석용(통일부 장관)씨 모친상 = 5일, 전남 광양시 성황동 동광양 장례식장, 발인 7일, ☎ 061-795-7700
- ▲최정남씨 별세, 김경운(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장)씨 모친상 = 4일 오후 11시 10분, 인천시 계양구 새천년장례식장 301호, 발인 6일 낮 12시, 장지 김포시립납골당. ☎ 032-552-3100

발효 전성시대... 김치·홍삼 등 '면역력 제품' 잇단 출시

한국야쿠르트 발효홍삼 '발휘'
100% 유산균 발효홍삼 농축액

교원더오름 프리미엄 '호소홍삼정'
사포닌 분리·정제·추출 ECS 적용

샘표 '마이크로발효 양배추즙'
-196도 초저온 조리로 영양소 지켜



발휘

/한국야쿠르트

한절기에는 갑자기 달라진 외부 환경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잦은 피로감을 느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를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김치, 치즈, 요구르트 등의 음식들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원재료 자체가 면역력을 높여 주기보다는 원재료가 발효를 통해 변화되면서 흡수율이 높아져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나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홍삼의 경우도 핵심 성분으로 잘 알려진 사포닌을 흡수가 잘되는 형태의 컴파운드K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됐다. 사포닌의 경우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장 속 환경으로 인해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특이 사포닌 형태로 섭취해야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프리미엄 발효홍삼 '발휘'를 출시하며 시장 강화에 나섰다. 한국야쿠르트는 50년 유산균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체내 흡수가 탁월한 프리미엄 발효홍삼 '발휘' 3종을 선보였다. 제품에는 100% 유산균 발효홍삼

농축액을 적용해 일반홍삼 대비 빠른 흡수와 유지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발효홍삼 '발휘'의 주원료인 에이치와이(HY) 발효홍삼 농축액은 100% 유산균으로 발효한 홍삼 유효성분의 흡수와 유지 우수성을 인체시험으로 입증했다.

교원더오름의 '호소홍삼정'은 프리미엄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호소발효를 통해 체내흡수율이 매우 높은 특이 사포닌을 분리, 정제, 추출할 수 있는 호소처리시스템(ECS)을 적용했다. 이 제품은 흡수율이 높게 전환된 특이 사포닌 컴파운드K를 하루 3mg 제공하며, 국내산 6년근 홍삼을 사용해 진세노사이드 Rg

1, Rb1 및 Rg3를 하루 19.8mg을 제공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항산화, 혈액 흐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건강증진의 경우도 홍삼처럼 발효 기술 적용으로 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홍삼의 사포닌을 컴파운드K로 전환한 것처럼 유산균 발효를 통해 원재료의 영양성분을 저분자 형태로 바꿔 흡수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샘표 '백년동안 마이크로발효 양배추즙'은 73년 발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원재료를 -196도 초저온에서 통째로 갈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다. 위산을 억제, 원활한 소화작용을 돕는 비타민U와 노폐물 배출 및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타민C, 비타민K가 함유돼 있는 국내산 양배추를 통째로 갈아 양배추의 잎뿐 아니라 심지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게 했다. 발효 기술은 영양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양제의 경우도 흡수율에 따라 체내에서 적용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효 기술을 활용해 흡수율과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을 적

듀오안(안)

/한국야쿠르트

용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리턴업 발효비타민'은 연령별로 필요한 비타민을 적합한 비율로 구성해 제공하고 '발효건조 효모분말'을 주원료로 5단계 발효공법을 거친 영양소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특허 받은 클린 라벨 기술을 적용해 식품첨가물을 배제하고 식물성 원료로만 제품을 만들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장 건강 발효유 '듀오안(안)'은 유산균에 프리바이오틱까지 갖춘 제품이다. '듀오안(안)'은 서울우유 전용 목장에서 생산한 국산 원유 72%와 세계특허 듀얼 코팅 한국산 유산균 듀오락의 결합으로 탄생한 진한 맛의 농후 발효유다. 최근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은 유익균의 먹이로 설사 및 변비 완화는 물론 '비만 세균'이라고 불리는 퍼미큐티스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신제품 '듀오안(안)'은 유익균의 장내증식을 강조한 '신바이오틱스' 발효유로 몸에 좋은 더덕과 홍삼 분말까지 첨가하여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U배달서비스 매출 상승효과 톡톡

BGF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가 전국 2000여 가맹점에서 'CU배달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드러났다.

CU는 지난 9월부터 'CU배달서비스' 대상 상품을 도시락, 삼각김밥, HMR, 디저트, 아이스크림 등 200여 먹거리 상품에 60여개 생활용품을 추가했다. 이로써 먹거리 상품만 배달이 가능했던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서도 다양한 생활용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CU가 최근 1개월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과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배달서비스'에 생활용품이 확대되면서 도입 전보다 구매 단가도 평균 10.2%가 올랐으며 (기존 구매 단가 1만6500원 → 1만8180원) 배달서비스 매출도 19.2%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포근한 '캐시미어'... 5만장 판매

창립 40주년 '캐시미어 100%니트'
사전기획 통해 합리적가격 책정 '따뜻한 날씨' 판매량 증가 도와

롯데백화점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 27일 선보인 '캐시미어 100%니트'가 11월 2일까지 총 5만여장의 판매를 기록하는 등 고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판매가 진행된 30여 일만에 캐시미어 단일상품 5만여장 판매량은 지난 2017년 12월 큰 이슈가 되었던 '평창 룬패딩'의 판매량인 3만 여장을 뛰어넘는 숫자이다.

캐시미어 소재는 무게가 가볍고, 보온 효과가 우수해 일반적인 니트 가격대가 20~3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가 원단이다. 롯데백화점은 사전 기획을 통한 대규모 물량 확보를



니트 전문 PB '유닛'의 '캐시미어 100% 니트'

/롯데백화점

통해 캐시미어 100% 소재의 여성용 니트를 8만 8000원에, 남성용 니트를 9만 8000원이라는 10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2018년 9월부터 기획하기 시작한 최상급으로 꼽히는 내용

고 지역의 캐시미어 원사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체계적인 생산 계획을 세움으로써 남성/여성용 니트를 10만원 이하 가격에 선보일 수 있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통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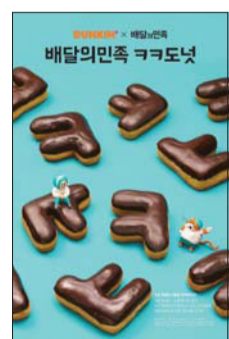


오리온 '가성비' 웨하스 출시

오리온은 기존 환경 웨하스의 가격을 인하여 가성비 높은 '오리온 웨하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리온 웨하스는 가성비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60g 규격을 편의점가 기준 900원에 선보인다. 오리온은 가벼운 식감과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맛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웨하스를 가성비도 높은 만큼, 젊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던킨도너츠 배달의민족ㅋㅋ도넛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배달의민족ㅋㅋ도넛'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배달의민족ㅋㅋ도넛'은 배달의민족이 올해 개최한 'ㅋㅋ페스티벌'에서 영감을 받아 출시됐다. 한글 자음 'ㅋ' 모양의 도넛에 다크 초콜릿을 토핑해 달콤한 맛과 식감이 특징이다. 해당 신제품은 던킨도너츠 매장과 배달의민족 앱에서 11월 14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박인용 기자



CJ오쇼핑 브랜드 '엣지' 누적주문 1400억

CJ ENM 오쇼핑부문의 단독 패션 브랜드 '엣지(A+G)'가 올 가을겨울(F/W)시즌 흥행에 힘입어 누적 주문 금액 14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프리미엄 소재에 팝 컬러(채도가 높은 화려한 색)를 더한 아우터가 줄줄이 매진

을 기록 중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주문금액 18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엣지는 11월부터 프리미엄 아우터를 본격적으로 선보여 브랜드 성장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엣지가 선보인 '데디베어 폭스(FAUX) 무스탕'은 첫 방송에서 30분 만에 약 5500개 이상 판매되며 5억원이 넘는 주문금액을 기록했다. 동물성 소재를 거부하는 '비건' 트렌드에 발맞춰 폴리에스터 원단 100%의 '페이크 퍼(Fur)'로 만들어진 제

프리미엄 팝컬러 아우터 매진행진 연내 주문금액 1800억 돌파할 듯 품으로, 코코아브라운·카멜 외에도 로열블루·로즈핑크 등의 주요 사이즈가 모두 완판됐다.

초록, 보라 등 기존 겨울 아우터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화려한 색감이 특징인 '엣지 르네 솔리드 울 블렌드 코트'는 지난달 4000벌 가까이 판매되며 11억원이 넘는 주문실적을 기록했다. 11월부터는 세계 3대 구스로 꼽히는 헝가리 구스를 활용한 아우터를 줄줄이 선보인다.

한편, 엣지는 지난 2011년 CJ EN

M 오쇼핑부문과 한해연 스타일리스트가 협업해 론칭한 단독 패션 브랜드다. 론칭 이듬해인 2012년 연 주문금액 300억원을 기록한 후, 5년 만에 연 주문금액 900억원의 브랜드로 성장했다. 지난해엔 해외 프리미엄 소재 제품군 확대, 유명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에 힘입어 연 주문금액 1500억원을 기록, CJ오쇼핑 연간 히트상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치매 패치제' 도전장

아이큐어와 '도네페질' 임상 3상 내년 연말까지 국내 허가 목표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일환"



서진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이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큐어와 함께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Donepezil) 패치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 6월 아이큐어가 개발해 비임상 및 임상 1상을 마친 치매 치료 도네페질 패치제 개량신약에 대한 국내 공동 판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동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말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말 도네페질 패치제 국내 허가를 목표로 노인성 뇌질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다양한 케미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글로벌 판매를 통

해 세계 케미컬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피약물 전달기술 특히 5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큐어와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도네페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8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13%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2021년에는 시장규모가 25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도네페질은 치매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으로 현재 경구 제형만 상용화 됐다. 이에 지금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루 복용량이 많고, 제제 안정성이 낮은 경구제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패치제형 개발에 도전해왔지

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공동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도네페질 패치제 개량신약은 기존 1일 1회 경구제 복용과 비교해 1주일 2회 패치 부착으로 복용 순응도를 높이고, 패치 크기를 줄여 복용 편리성을 한 차원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에 다중 특허를 출원해 2035년까지 독점권을 보유하는 한편, 아이큐어가 400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전북 완주공장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cGMP급 생산기지도 확보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케어 개발에 이은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도네페질 패치제를 개발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스맥스 본사에서 열린 '뉴스킨-코스맥스 업무협약식'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킨코리아

뉴스킨, 코스맥스와 손잡고 K-뷰티 박차

연구·개발·생산 등 업무협약

뉴스킨 코리아는 글로벌 본사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지난 4일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회사 코스맥스와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스맥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조지훈 뉴스킨 코리아 대표이사과 케빈 풀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제품 및 브랜드 부문 수석 부사장을 비롯해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스킨은 글로벌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화장품 ODM 선도 기업인 코스맥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K-뷰티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

뉴스킨은 지난달 코스맥스와 함께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갈바니 라인에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락 갈바니 스킵 파워마스크'를 새롭게 선보였다. 에이지락 갈바니 스킵 파워마스크는 한국을 허브로 뉴스킨의 글로벌 시장을 통해 폭넓게 판매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색조 제품이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코스맥스와 공동으로 '뉴컬러(Nu Colour)' 라인의 개발 협력을 증대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 쿠션 파운데이션의 선풍적인 인기로 지난 해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쿠션' 라인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글로벌 파운데이션 라인을 오는 2021년 론칭하기 위해 코스맥스와 함께 개발 중에 있다. /신원진 기자

삼바, 美 제약사와 아토피신약 CMO계약 확대

(위탁생산)

아이크노스社와 63억 추가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아이크노스 사이언스(Ichnos Sciences)와의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위탁생산(CMO) 계약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 6월 양사간 체결한 100억원 규모 CMO 계약에 63억원을 추가 체결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고객사 제품개발 성공 시 최소보장 금액 증가 관련 조항도 새롭게 이끌어냈다.

회사가 추구하는 이번 계약의 최소보장금액은 163억 원(1510만 달러)이다. 2020년으로 예상되는 고객사의 제품개발이 성공할 시, 최소보장 계약 규

모는 715억원(6644만 달러)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진행용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아이크노스 사이언스는 신약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높은 시장성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물질 연구를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이다.

삼성바이오와 아이크노스 사이언스는 지난 2017년 위탁생산계약 의향서를 체결하며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는 이후 고객사 신약의 빠른 출시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

공과 고객만족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추가 생산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향후 고객사의 개발성공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3공장까지 생산공정을 확장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최소보장 계약금액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은 "아토피 피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있어 고객사의 임상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GS리테일 1만원대 '캘리포니아메들로' 선배

네이처사운드 와인 시리즈 2탄

GS리테일은 지난 4일 '네이처사운드(The Nature Sound)' 와인 시리즈 2탄 네이처사운드캘리포니아메들로(이하 캘리포니아메들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네이처사운드는 GS리테일이 '자연을 담은 와인' 콘셉트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와인 시리즈다.

네이처사운드 시리즈의 첫 상품인 네이처사운드호주쉬라즈(이하 호주쉬라즈)가 지난해 출시 후 1년만(18년9월~19년9월)에 누적 판매량 40만병을 기록하고 와인 분류 매출 순위 1위(10월 기준)에 오르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자 두번째 시리즈인 캘리포니아메들로가 기획된 것이다.

GS리테일이 이번에 선보인 캘리포니아메들로는 체리, 블루베리향과 커런트(Current)향, 오크통의 바닐라향의 어우러짐이 인상적인 와인으로 탄닌(떫



모델이 네이처사운드캘리포니아메들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은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와인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쉽게 즐길 수 있다. GS리테일은 이번 캘리포니아메들로를 위해 미국 유명 와이너리인 펫저(PETZER)와 협업했다. 펫저는 미국에서 가성비 높은 물론 품질까지 인정받아 '올해의와이너리'로 선정된 바 있다. 덕분에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메들로 와인을 가성비까지 갖춘 1만원대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모나미 두번째 '모나미 153 스마트펜'

모나미가 두번째 '모나미 153 스마트펜(사진)'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모나미 153 스마트펜'은 지난 1월 출시한 네오스마트펜 '모나미 에디션' 완판에 힘입어 모나미 153 1.0mm 볼펜의 노란색 바디와 검정색 노크의 색상을 적용한 두 번째 스마트펜이다.

모나미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펜에 모나미만의 특별한 감성과 153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완성시켰다. 스마트펜은 종이에 쓴 글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주는 제품으로, 펜에 내장된 광학센서가 필기를 디지털로 변환해 스마트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패키지는 모나미 153스마트펜본품과 전용 노트 1권, 리필용 볼펜심 3개, 충전용 USB 케이블, 153 한정판 배지 1개로 구성됐다. /백인용 기자



파리바게뜨 "뉴트로 감성 선물로 수험생 응원하세요" 파리바게뜨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파리바게뜨 카페대화로점에서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뉴트로 감성의 패키지에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수능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GC녹십자웰빙 '프로바이오틱스' 특허 취득

"신장질환 개선 등에 효능"

GC녹십자웰빙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신장질환에 효능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이 취득한 특허는 요독증, 만성신부전 등 신장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조성물 특허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인 요독 물질의 제거 효과가 뛰어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선별해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투여군에서 신장기능지표인 혈중 요소 질소 수치와 크레아티닌 농

도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면 혈중 요소 질소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다. 또 투여군에서 신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염증유발 물질 중 하나인 신장조직 내 종양괴사인자(TNF- α)가 대조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회사 측은 특허 등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김점용 연구소장은 "특허 등록된 균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적절한 치료환경이 부재한 만성신부전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KT, '스카이십'으로 전세계 아동보호 나선다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무인비행선으로 아동 노동 근절

KT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보호를 위해 무인비행선인 '스카이십'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KT 스카이십은 비행선과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무인 비행선으로, 최대 풍속 13m/s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속도 80km/h로 주행한다. KT는 스카이십에 원격관제·조종·통신, 풀HD 영상 수집, 의약품 운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협약에 따라 KT와 유니세프는 내년 초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형 분석을 통해 디지털 맵을 생성하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스카이십을 활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맵핑은 지형 데이터 이미지를 분석해 디지털맵



KT-유니세프 MOU(왼쪽부터) KT 지속가능경영단 이선주 단장,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윤혜정 단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 유니세프 본부 기금모금국장 호르헤 올라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윤혜정 단장은 "KT와 유니세프의 협약은 빅데이터와 드론 등 KT의 ICT 기술이 아동보호 분야에

기여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와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중국이 AI 강국 된 이유



기지 수첩 채윤정 (산업부)

솔인 얼굴인식 기술이 발달하기 힘들다. 의료 분야 규제도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된 원격진료 서비스도 요원하다.

인공지능(AI) 강국을 뺏을 때 IT 선진 기업들이 자리 잡은 미국 외에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중국이다. 심지어 중국이 AI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만 해도 단연 IT 강국으로 손꼽혔지만 AI에서는 아직 후진국으로 중국의 AI의 성공은 부럽기만 하다. 국내 AI 전문가들과 중국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중국의 AI 성공은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 AI 기업의 대표는 "AI에서 빅데이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CCTV도 보안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AI 대표기

AI 기업이나 협회에서 두번 짤로 꼽는 성공요인은 중국의 AI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다.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시장도 큰 데다 중국 정부가 아낌없는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부서별로 예산이 나눠지고 결국 한 기업에 배당되는 금액은 1억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한 기업에 1000억원 정도씩 투자되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AI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빅데이터가 활성화돼 AI가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또 AI 스타트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에는 '생생내거식 지원'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R&D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 도 못 돼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도 대다수 AI 기업들이 4년 차에 접어들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 /echo@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SK하이닉스는 4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2019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반도체 기술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 혁신 아이디어를 묻는 행사다. 2017년부터 매년 이어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우수 아이디어 17개를 선정해 총 상금 2억6500만원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IT 분야를 신설해 5개 분야에

서 아이디어를 모집했으며, 전년보다 2배나 많은 아이디어가 응모했다.

최우수상은 저온 성장 나노 다공 구조 공정 개발을 제안한 충북대 이현석 교수와 효율적 테스트 방법을 제안한 연세대 강성호 교수가 받았다. 2건이 최우수상을 함께 받은 것은 공모전 최초다. 그밖에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열정/패기상 5건 등이 뽑혔다.

SK하이닉스는 시상한 아이디어를 지식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17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SK하이닉스

산권으로 출원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우 기자 juk@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10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는다. 48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60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소문나지 않게 조심. 72년생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배려는 큰 힘이 된다. 84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 소** 37년생 슬픈 일은 이제 잊을 때가 되었다. 49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한 것. 61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73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5년생 오늘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내일이 편하다.
- 호랑이** 38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0년생 길을 나서면 상비약을 챙겨라. 62년생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 74년생 주변인과 견해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내가 양보해야. 86년생 청색, 손수건이 오늘 행운의 상징.
- 토끼** 39년생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힘들다. 51년생 고달픈 나를 위해 잠미를 선물. 63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75년생 친구와의 대화중 자존심이 상한다. 87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
- 용** 40년생 자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 5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거래가 순탄. 64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양보가 마덕. 7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 88년생 오후에 반가운 소식이 온다.
- 뱀** 41년생 지갑이 비었으니 비상금을 활용. 53년생 아개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65년생 먼저 용서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77년생 이별에 대해 흐르는 것을 막아서지 마라. 89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 말** 42년생 목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54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자. 66년생 가족도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것. 78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이다. 90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 양** 43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온다. 55년생 사기 운이 있으니 도장 찍는 일은 신중히. 67년생 죽은 나무에 물주는 이제 그만. 79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이라도 한 장 구입. 9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못한다.
- 원숭이** 44년생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라. 56년생 소소한 적선이 더 큰 보답으로 온다. 68년생 눈에서 멀어진다고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80년생 무리한 지출로 마음이 불편. 92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
- 닭** 45년생 인색한 구두쇠는 3류 인생. 57년생 진실이 매번 옳은 것은 아니다. 69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귀한 정보를 얻는다. 8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발 언덕이 절실. 93년생 나에겐 자랑이지만 남에겐 꿀볼건일 수 있다.
- 개** 46년생 자식사랑에 지갑이 털린다. 58년생 겹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 70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 가서 눈 흘길 듯. 82년생 정치나 종교에 관여 말자. 94년생 오늘의 기쁨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 돼지** 4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접는 것이 상책. 59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가 된다. 71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두라. 83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95년생 중이 절이 싫으면 자신이 떠나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1			6	
	8			4	1			
	3		5				4	
8			3	2		1		
7	6							
5			4	8		7		
	4		9			8		
	1			5	3			
		2	8		6			4

	1		3		4		7	
2		3				5		6
	4						9	
1			2		3			9
		9		8		6		
	2						5	
9	3					6	5	
6		4		3		9		2
	5		1		9		3	

스도쿠 정답								
4	6	9	1	8	2	5	3	7
2	9	5	7	3	8	1	6	4
1	8	5	2	6	4	7	9	3
5	4	6	8	9	7	1	2	3
8	2	7	6	5	1	9	4	3
3	1	9	2	4	7	6	8	5
6	7	3	4	8	5	9	1	2
7	5	1	7	9	6	8	3	4
9	8	1	6	2	3	4	7	5



김상희의四季 미리 걸어 본 길

어김없이 입시의 계절이 왔다.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2월 말까지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동분서주하며 자식이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담은 한 어머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상담을 청했다.

딸의 대학교 진학에 관한 고민이었다. 딸은 2년 전에 수능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입학했다. 독일어를 전공한 딸은 1학년을 마치고 독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1년 예정이었는데 딸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돌아오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학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를 자퇴한 딸은 다시 대입 공부를 시작했다. 다행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기대가 크다. 원하는 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만한 수준이어서 한시름 놓은 상황인데 엄마의 걱정은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상담을 청한 어머니 사주를 우선 짚어 보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자녀를 보는 공이 시주인데 자녀가 영민하고 나중에 자기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보인다. 딸의 사주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편관이 용신으로 머리가 좋고 일을 추진할 때 과감하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 않는다. 이런 사주이기에 독일까지 갔다가 스스로 돌아왔을 것이다. 자기의 길을 찾겠다며 과단성 있게 결심하고 즉시 귀국한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로이다. 딸은 대입이란 고비를 지나 잘 풀려나갈 운세를 보여준다. 미리 굽어본 길을 걸어 본 것이라 늦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했기에 더 탄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3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0호

집, 짓는 것 빼고 多한다... “토틸 라이프케어 지향”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한 경 희 환경희생활과학 대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게 모든 이들의 꿈인 것처럼 환경희생활과학이 고객들의 그 꿈을 이뤄줄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꿈은 국내를 넘어 ‘토틸 라이프 스타일·토틸 라이프 케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서울 가산디지털밸리에 있는 환경희생활과학 본사에서 모처럼 만난 한 경희 대표의 얼굴은 무척 밝았다.

스팀청소기·스팀다리미와 같은 생활가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 들어선 집안의 모든 가전 제품을 ‘환경희 허브’ 하나로 묶어 스마트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환경희스마트홈’을 선보이더니 최근엔 인테리어 브랜드 ‘로미’까지 내놓으며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그다.

▲주부사업가▲스팀청소기 창시자▲1세대 여성 벤처기업가▲대학생이 가장 만나고 싶은 여성 CEO 등 한 대표를 수식하는 말들은 수없이 많았다.

집안 청소를 하다 생각한 스팀청소기로 사업에 뛰어들어 한 때 매출 1000억 기업까지 바라보던 그였으니 ‘도전’이란 단어는 그와 늘 함께 있었다.

청소기, 다리미 등을 만들던 생활가전회사였던 환경희생활과학은 한 대표의 말처럼 이제 집 전체를 관장하는

‘토틸 라이프 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로미키친’을 통해 가장 먼저 부엌 인테리어를 출시했지만 부엌에 머물지 않고 거실, 안방, 욕실 등으로 제품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불박이장의 경우 공장에서 찍어내는 일반 불박이장과는 다르다. 고객이 평생 수납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테리어를 제공할 것이다.”

“**홈스타일 브랜드 ‘로미’로 인테리어시장 출사표 맞춤·최적 시공으로 평생 수납걱정 덜게 하고 ‘토종브랜드’ 경쟁력으로 亞·유럽 진출 청사진도 IoT 플랫폼 ‘환경희스마트홈’ 집 넘어 오피스로**”

한 대표의 말이다. 한마디로 집을 짓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게 환경희생활과학과 한 대표의 목표다.

그 출발점인 환경희 홈스타일 브랜드 ‘로미’를 시장에 선보이기까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한 대표는 유럽 등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손수 찾아다니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로미 디자인만 100가지에 달한다.

한 대표는 “앞서 선보인 청소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대중화시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

이다. 가격은 시장에 알려진 일반 브랜드 수준이지만 품질은 고급주택의 인테리어 수준까지 높였다. 로미 스타일을 통해 비스포크(bespoke·맞춤제작) 인테리어를 모든 고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희식 인테리어는 고객이 ‘환경희 홈스타일 로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문의하면 사흘안에 디자이너가 직접 고객을 방문해 최적의 스타일

을 찾아 원하는 시기에 완벽하게 시공하는 방식이다.

한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향후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의 인테리어 시장까지 넘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럽과 같이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프리미엄 인테리어 가격이 워낙 비싼 것이 현실이어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Made in KOREA’ 토종 브랜드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처음으로 선보인 ‘환경희스마트홈’은 집안을 넘어 사무실 등 오피스시장까지 추가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면 사무실의 보안시스템이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데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하다”면서 “사무실이나 가게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모션센서를 통해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는 등 집안 뿐만 아니라 오피스분야에서도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1999년 창업한 이후 그동안 시장에 1000만대 넘게 판매한 스팀청소기, 스팀다리미 등의 제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시장에 워낙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생활가전들은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1인가구까지 관심가질 수 있는 콤팩트하지만 다양한 청소기능을 갖춘 멀티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자신도 집안일을 하던 시절, 주부들의 청소를 돕는 스팀청소기로 사업을 시작해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한 경희 대표.

“환경희생활과학이 지난 몇 년간 험난한 길을 간 것에 대해 응원을 보내신 분도, 훈수를 두신 분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린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내년쯤이면 우리의 목표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국내와 해외에서 다시 새로운 영

한 경희 대표가 서울 가산디지털밸리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역을 개척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꼭 지켜봐달라.”

기자에게 자신에 찬 말을 던진 그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시장 조사를 위해 이웃나라 중국으로 날아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앞줄 왼쪽부터)김병호 SPC그룹 부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효진 대림통상 부사장,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최승욱 기보스틸 회장, 조성욱 위원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이보관 서희건설 회장, 배인규 태화기업 그룹경영고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과기부, AI 기반 정책관 신설... D.N.A 강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늘어난 정책 총괄·조정 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

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AI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네트워크 분야도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설로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의 종합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한다. 특히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 등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조성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장)

중견련 주최 ‘CEO 강연회’서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반포동 웨라튼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주최한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 연사로 참석, “공정한 경쟁 규칙이 준수되는 시장 환경

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기반”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견·중소기업의 중층적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객체이자 주체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공정거래제도 활용 및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정수기·공기청정기 ‘굿디자인’ 수상

청호나이스는 ‘직수정수기 Compact(콤팩트)’와 ‘공기청정기 A600’이 ‘201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다.

‘2019 굿디자인’에 선정된 청호 직수정수기 콤팩트는 소형이면서 무게는 1.9kg으로 가벼워 좁은 주방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LG하우시스 ‘지인’, ‘LG 지인’으로 새단장

LG Z:IN

LG하우시스가 자사의 인테리어 브랜드 ‘지인(Z:IN)’을 ‘LG지인(LG Z:IN)’으로 바꾸고 B2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하우시스는 인테리어 자재 브랜드 ‘지인’을 LG그룹의 브랜드인 ‘LG’

와 결합해 ‘LG지인’으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업계 최초로 인테리어 자재 통합 브랜드 ‘지인’을 선보인 LG하우시스는 이후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브랜드화를 선도해 왔다. 브랜드 변경은 14년만이다.

새 브랜드 ‘LG지인’은 LG하우시스

의 창호, 유리, 바닥재, 벽지, 인테리어 스톤, 인테리어필름 등 인테리어 제품에 사용하게 되며 전국의 전시장, 매장, 대리점 점령에도 적용한다.

LG하우시스는 이번 브랜드 변경을 통해 프리미엄 인테리어 자재 브랜드로서 지인이 쌓아온 전문성에 LG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와 친밀함을 더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기독교인 사로잡은 신천지 ‘계시 복음’

전국 6개 도시 순회 신천지 말씀대집회... 광주서 완벽한 피날레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 광주서도 폭발적 인기
‘말씀 안에서 신앙’ 강조, “성경 약속 아는가?”

목회자·신학생 박수갈채 “이치에 맞는 성경해석 놀랍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씨(말씀)로 추수되어 인(印)맞은 하나님의 나라 열두 지파 창조이며, 하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 오늘날까지 일하셨습니다. 이번 말씀대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창조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원에 이르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 말씀대집회, 한 달간의 여정 광주서 마무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전국 말씀대집회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시작해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광주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호소력 짙은 강연으로 전국 신양인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 창조 목적과 약속’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 광주 베드로성전에서 개최된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에는 수많은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목회자와 신학생을 비롯한 기독교 신앙인, 타 종교 관계자 등 종교인 45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이번 말씀대집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번 광주 말씀대집회는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동시간대 전국 신천지 본부교회 및 지교회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곳곳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등의 지교회를 개방해

말씀대집회 생중계 영상을 시청했다. 이날 이만희 총회장의 강연은 베드로성전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열띤 환호와 박수와 함께 이뤄졌다. 이 총회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한 것을 이뤄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이룬 것을 보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한 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간다(계시록22장 18~19절)고 했다.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천국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계시록의 열린 책을 받아먹고(계시록 10장) 모든 계시록 사건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자를 통해 증거받아야 한다”라며 자신이 계시록 전장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계시록22장 8,16절)임을 명확하게 전했다.

이어 이 총회장은 이번 집회에서 핵심 키워드로 ‘씨와 추수’를 꼽았다. 그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씨(말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순회 말씀대집회에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새 일 창조 목적과 약속’에 대해 청중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지난 2일 광주 신천지 베드로성전에서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의 새 일 창조 목적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지난 2일 광주 신천지 베드로성전에서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가 열렸다. 사진은 말씀 강의 전 진행된 신천지 천화예술단의 공연 모습.

로 난 자들을 추수해 ‘새 나라 새 민족’을 만드는 때이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추수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밭에 그대로 남아 심판받게 된다”며, “추수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예언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건 성경과 반대되는 행위다. 추수와 열두 지파 창조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성경대로 창조됐는지 확인해

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다섯 번의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와 신양인들의 부패한 현실을 알리면서 자각과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약속을 왜곡하고 다른 뜻으로 거짓말을 지어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 마귀 자식을 만든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가?”라며, “목회자는 자기 입

맛대로 주석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으며, 신양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석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고, 천국 가는가? 참된 목자를 만나 성경을 확인해 보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신앙할 것을 호소했다.

“명쾌한 성경말씀 듣고 속이 ‘뽕’ 뚫렸다”...말씀대집회 참석자 폭발적 반응



▲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 2일 광주 신천지 베드로성전에서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대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강연 전 강제개종에 대한 현실을 알리는 ‘말세특목 팩트체크’ 코너 진행 모습.

모 신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노아(가명, 63)교수는 “무엇보다 이만희 총회장님에 대한 선입견이 좀 벗겨졌다. 새로운 교파를 만든 분이니까 독단적이고 강할 거라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알기 쉽게 신구약을 넘나들며 설명하는 것을 보니 이전의 오해들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졌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설교도 들어볼까”하는 마음도 들었다. 전반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명, 54)씨는 “신천지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 그동안 밖에서 들던 말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제껏 신천지는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들이었는지 알게 됐다.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잘못된 소문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말씀을 들어보니 이치적으로 맞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다른 목사들 설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의 강연 전 1부에서는 특별 공연과 한국 기독교의 강제개종 현실을 알리는 ‘말세특목 팩트체크’가 진행됐다. 강제개종 피해의 간증자로 나선 권 모씨는 신천지에서 강제 개종을 시키고 있다는 풍문이 거짓됨을 알리며, 오히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류 소속인 장로교가 자행하

는 인권 유린적 강제 개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만 15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2명은 사망에 이르렀음을 고발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관계자는 “이번 말씀대집회 참가자들의 후속교육에 대한 문의가 현재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전국 각 지파장 및 교회 담임들이 꾸준히 말씀대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리 베드로지파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말씀대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나와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방향성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사회적 가치 식음매장 오픈행사를 열었다.

‘착한매장’ 인천공항 스타트업 ‘희망날다’

매월 수익 10%, 미혼모 시설 기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식음매장인 ‘희망날다’ 1, 2호점이 지난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개점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 식음매장 ‘희망날다’는 인천공항내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영업매장이다. 공항공사는 ‘희망날다’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장 임대료를 면제하고, 설비 및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등 매장 개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했다.

이번 개점에 앞서 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식음사업자인 롯데GRS(대표이사 남익우)와 함께 8월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품평회, 심층면접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희망날다’ 1호점으로 개점한 ‘CAFE 청해음’은 청년들이 창업한 매장으로 과수 농가와 상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매월 수익의 10%를 미혼모 시설에 기부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해남 저울질

발표는 언제쯤... 기약없는 기다림

후보지 영암·신안, 사실상 배제
이전 본부, 1년간 무안 18차례 방문
광주시 “발표해야 후속 작업 속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됐지만, 지역민 반발과 이전 추진 기관 간 입장 차로 선정 발표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민간공항이 있는 무안이 유력하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론화 성사 여부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게 됐다.

5일 국방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등은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과 해남군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지역별 타당성,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애초 후보지였던 4곳 중 영암, 신안은 사실상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해남보다는 무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무안을 18차례 방문하고 지역 주요 인사들의 이전 찬반 성향 등 동향까지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무안 시민사회의 이전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무안 유력설’에 선을 그었다. 해남은 아예 방문조차 하지 못했지만, 무안군은 전남도를 통해 그나마 몇차례 접촉을 해온 터라 상대적으로 무안이 부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급

부로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항 시설 집적화 등 측면에서도 무안의 입지적 특성을 가늠어 보기는 어렵다. 광주시는 무안이든, 해남이든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는 광주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국방부에서 관망하고 있는 듯하다”며 “발표가 이뤄져야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협의해야 한다”며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고도 화성시의 결사반대로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원의 사례를 봐도 최소한의 주민 사전 동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안성시보건소, 아름다운 이별 ‘웰다잉’ 특강

안성시보건소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웰다잉(well dying)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5일 밝혔다.

‘웰다잉’이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특강은 안성시보건소, 공동읍 사무소, 동안성 시민복지센터에서 11

월~12월, 매주 수·목요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70세 이상 어르신 460명을 대상으로 ▲멋진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노년의 자기관리 ▲존엄한 마무리 ▲착한 이별 ▲노인 인권존중 ▲자산관리, 유언상속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사랑과 용서 ▲새로운 인생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8회차로 진행된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올해 마지막 단풍보며 곡성서 함께 걸어요”

오는 16일 절정에 이른 가을단풍과 함께 옥곡면 괴일산에서 금년 마지막 곡성군 토닥토닥 걷기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걷기에는 올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만큼 평소보다 대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곡성군 산악연맹(회장 이등로)이 주관하는 곡성군수배 생활체육 등

반대회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곡성군 11개 읍면 산악회원과 주민 등 최소 500여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토닥토닥 걷기 주최측인 곡성군은 걷기행사 시기를 산악회 행사 일정과 맞춤으로써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단체와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오늘 ‘방콕 부산단독 마이스 로드’ 시장 다변화, 공격적 마케팅 전개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19 방콕 부산단독 마이스(MICE)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일본, 중국 마이스(MICE) 시장 위축에 따른 시장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태국 현지 타깃 마케팅으로 마이스(MICE) 유치 증대와 태국 인센티브 여행단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비즈니스 상담회와 부산 마이스 나이트(BUSAN MICE NIGHT)로 구성되며 사전·사후 세일즈콜도 진행한다.

태국의 방한객은 지난 2018년에는 약 558천 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약 10%가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부산에서 촬영된 태국 TV 드라마 ‘아내’가 현지에서 방영되



지난 2일 열린 제15회 부산불꽃축제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부산시

기도 하였다.

태국의 수도 방콕은 앞으로 인센티브 관광단과 국제회의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산과는 2011년 7월에 도시 간 교류협력을 체결했으며 주 70회 직항이 운항한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태국의 마이스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 업계의 경쟁력은 한층 개선될 것이며,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5일 “한일, 한중 관계 경색으로 다소 위축된 마이스(MICE)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태국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지역 업계와 함께 선제적 마케팅을 전개하여 다른 도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인각 기자 remark@

흑산 홍어잡이, 국가어업유산 지정 탈락

신안군 홍어 숙성방식 설명 부족
홍어잡이 어가 7곳 계승여부 의문

신안 흑산도 홍어잡이의 전통어업 방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에서 탈락했다.

전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신안흑산 홍어잡이’가 탈락했다고 5일 밝혔다.

신안군의 흑산 홍어잡이는 지난 5월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8월 25~26일 심사평가단의 현장평가, 지난 10월 22일 최종 평가 등 3차례의 심사를 거쳤다.

지난 5월 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신안 흑산 홍어잡이’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안을 요구했으며, 군은 이를 보완해 2차 평가

를 마쳤다.

하지만 처음 보완이 요구됐던 지속 가능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흑산도에서 홍어잡이를 이어가는 어가는 7곳에 불과하고, 이들 어가들이 홍어잡이를 그만둘 경우 현재 어업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한 맛이 일품인 홍어 숙성 방식 등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신안 흑산의 홍어잡이는 19세기 후반까지 민낀시 주낙(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을 이용했다.

1980년대부터 한개의 고리(길이 약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의 흑산홍어 위판 모습. /뉴시스

85m)에 바늘 450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화됐지만 주낙을 이용하는 전통어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홍어잡이에 앞서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풍어제도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오늘의 날씨

11월 6일 (수)

음력: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6 ~ 1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07:01 | 해질 17:29

연천 1/15, 동두천 2/16, 가평 1/15, 파주 1/15, 서울 6/16, 양평 5/16, 인천 8/14, 수원 7/15, 용인 7/15, 평택 4/17, 백령도 10/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최용석 소리꾼이 5일 중구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프레스 시연회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조선 풍미한 광대 '달문' 웹판소리로 재탄생

유튜브 최적화된 3차원 영상 제작

"나졸이 바뀌면 달라지나 / 육방아전 이 바뀌면 달라지나 / 우리고을 사포가 옆고을 사포와 자리를 바꾸면 달라지나 / 당하관이 당상관이 되고 / 당상관이 당하관이 되면 달라지나 / 나라님이 바뀌면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 나라에 붙은 벌레들 똑떨어지고..."

웹드라마, 웹예능, 웹툰, 웹다큐... 왜 웹판소리는 없을까. 서울문화재단이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와 문학, 시각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 콘텐츠 '웹판소리'를 개발해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은 8일 오후 3시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팍TV'를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김탁환 작가의 역사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애'의 주인공 달문의 생애를 판소리와 영상 기법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산대놀이, 검무 등 전통 연희를 만나볼 수 있다.

조선시대를 풍미한 광대이자 재담꾼인 달문은 청계천 수표교, 동대문시장, 창덕궁, 마포나루 등 서울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풍자와 재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다.

김탁환 작가는 "달문은 당대 최고의 추남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는 춤꾼이었다.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 부자

였지만 가난했다. 민란의 두목으로 몰려 결혼을 안한 죄를 물게 돼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인물이 됐다"며 "이러한 세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물, 달문이 꿈꾼 세상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웹판소리 '달문'은 소설가 김탁환, 소리꾼 최용석, 그림 작가 김호찬 등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창작자들은 1차 콘텐츠인 소설을 전통음악인 판소리로 2차 재현하고 유튜브에 최적화된 캐릭터 이미지(모션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를 더해 3차 영상으로 만들었다. 배경음악은 국악 공연단 '공명'이 연주했다.

재단은 11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스낵컬처를 선호하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영상은 3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해외 시청자를 위한 영어자막 버전도 제공된다.

김종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장르 간 협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설, 판소리, 시각예술로 관심과 수요가 환원되는 혁신적인 창작문화콘텐츠 모델이다"며 "전통적인 판소리 공연을 넘어 국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한류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세금 납부서비스, 사회적 약자 눈높이 맞게"

서울시 ARS·무인납부기 등 신설

서울시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세금 납부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이는 ARS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ARS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이 뜬다. 기타 세외수입 조회와 납부, 지방세 환급금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층을 위한 무인납부기도 설치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사용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무인공과금납부기보다 높이가 낮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도 있다.

저시력인을 위해 200% 확대된 화면을 도입했다.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도 추가했다.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세금 무인납부기./서울시

시는 6일부터 마포구청과 공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인납부기를 시범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 10개 복지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미래교통 수단을 직접 타 본다 드론택시·자율주행 택배 집결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교통시스템 변화·미래 청사진 제시
유인드론·친환경 자율주행차 전시
VR로 하늘을 나는 가상 체험 제공

서울의 이동 패러다임이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함께 누리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8~9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와 MBC 앞 문화광장 일대에서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전망하고 모빌리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미래 교통혁신을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가 열리고 유인드론과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이 전시된다.

행사 첫날에는 '이동의 미래,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상암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모쉬 벤 아키바 MIT 교수가 '스마트 모빌리티 새로운 미래, 공유하는 가능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새로운 기회: 유인드론



미래 모빌리티 반자율주행차량 전시. /서울시

이 바꾸는 도시'와 '서울을 움직이는 자율주행사업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드론택시 업체를 선도하는 독일 '블로콥터'와 중국 '이항', 미국 '우버'의 드론 기체를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상암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타볼 수 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는 행사기간에 테스트베드 도로로 조성된 월드컵북로와 상암로 일대 약 3.3km를 주행한다.

자율주행 택배 로봏은 9일 ▲주차 ▲

장애물 회피 ▲교차로 주행 ▲장애물 긴급정지 등을 시연하며 택배 운반 미션을 수행한다.

전동 키보드와 전동 휠로 도심을 달려보는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VR(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실제 드론에 탑승해 하늘을 나는 가상 체험도 해볼 수 있다. 교통카드 대신 얼굴을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안면인식 체험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엑스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항동·서촌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서울시 두 지역에 5년간 200억 지원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해 개선 필요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과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두 지역에 향후 5년간 총 200억원(1곳당 1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항동과 청운효자·사직동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회복이 절실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항동은 김포국제공항,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근처 마곡지구 개발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경북궁 서쪽에 자리한 청운효자·사직동은 노후 한옥과 관리해야 할 빈집이 많다. 도시의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고 옛길(물길)과 미래유산, 우수 건축자산(체부동성결교회, 흥종문 가옥, 시인 이상의 집 등), 세종대왕 탄생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시는 두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적 기준 등 적합성을 검토했다. 향후 공항동과 청운효자·사직동이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비가 500억원(지역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수능일 장애인 수험생에 콜택시 우선 배차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고객,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수험생들이다. 희망자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신청 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선 배차 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야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운영돼왔다.

/김현정 기자



[종합·금융]
디지털 혁신
젊어진 한국투자증권
디지털뱅크 우리은행
04·05



Life

[산업]
BMW코리아
돈 보다 브랜드 가치
경험 통한 소통
08



은빛억새·핑크물리 물결 따라... 깊어진 가을에 빠지다



- ① 시민들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하늘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 ②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모습.
- ③ 하늘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억새밭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④ 하늘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핑크물리 밭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다. /김현정 기자

되살아나는 서울

㉞ 하늘공원

과거 한강변에는 난초와 지초가 어우러진 '난지도'라는 이름의 섬이 있었다.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1억4000만t의 쓰레기가 버려졌다. 아름다웠던 섬은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고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풍기는 불모의 땅이 됐다. 서울시는 1993년 난지도에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제17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는 2000년 11월부터 공원을 조성, 2002년 5월 개원했다. 월드컵공원(105만평 규모)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전공원 ▲난지한강공원의 5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됐다.

◆억새길 걸으며 가을 정취 만끽

지난달 28일 억새꽃이 절정을 이룬 하늘공원을 찾았다. 하늘공원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해발 98m 높이의 언덕에 자리해 있다. 서울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한강 쪽으로 약 30분을 걸었다. 야트막한 언덕 아래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공원 안내요원은 "맹꽁이 전기차를 타고 하늘공원에 가기 위한 줄"이라며 "언덕을 오르기가 힘든 어르신이나 어린애들이 있는 부모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귀띔했다. 맹꽁이 열차 매표소에서 하늘공원까지는 전기차를 타면 5~10분, 걸어서 올라가면 30~4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맹꽁이 전기차를 타기 위한 대기 줄이 너무 길어 직접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덕 끝에 다다랐을 무렵 산길을 지그재그로 오르는 등산객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공원에 가려면 291개의 계단을 등반해야 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에 섞여 계단을 한칸, 두칸씩 올라갔다. 이날 하늘계단에서 만난 주부 정모(55) 씨는 "계단 양 옆으로 갖(채소)이 정말 많이 심어져 있다"며 "케가고 싶는데 위험할까 봐 꼭 참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승연(22) 씨는 "계단 올라가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여기서 보는 상암동 풍경이 장관"이라며 "월드컵경기장도 별 생각 없이 지나쳐 왔는데 위에서 보니 크기가 좀 실감난다"며 활짝 웃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FIFA 월드컵 경기 개최를 위해 건립됐다. 1998년 11월 착공해 3년 만인 2001년 11월 문을 열었다. 총 20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16만 6503㎡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

졌다.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6만670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구경하며 역에서 출발한 지역 1시간 만에 하늘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날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바람에 따라 출렁이는 은빛 억새 물결 속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강수량과 일조량이 적당해 억새가 전년 대비 30cm 이상 더 높이 자랐다"며 "풍성해진 억새밭 경관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핑크물리부터 댁싸리까지...

이날 오후 하늘공원을 방문한 차혜수(20) 씨는 "생생정보통에서 보고 왔다. 억새랑 핑크물리가 너무 예쁘다"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핑크물리가 조금밖에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하늘공원에는 10만9487㎡의 대규모 억새밭이 조성됐다. 억새밭은 공원 개원 당시 전국 23개 시·도에서 가져와 심은 것으로 제주도 산굼부리 오름에서 가져온 억새를 따라온 식물 '야고'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2002년부터 하늘공원에서 억새축제를 개최해왔다. 올해 18회를 맞이한 축제는 지난 10월 18부터 24일까지 7일간 열렸다. 시는 이번 축제에 약 65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62만명의 시민이 하늘공원 일대에서 서울억새축제를 즐겼다.

경기도 수원에서 온 윤지은(21) 씨는 "맹꽁이 전기차를 타고 5분 만에 올라와서 별로 힘들진 않았다"면서 "다만 사람이 많아서 사진찍기가 힘들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공원에서는 댁싸리 미로와 억새밭, 핑크물리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일부 관광객들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억새밭에 들어가 식물들을 마구 헤집어냈다. 핑크물리 위에 누워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한, 두명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자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어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헛갈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직장인 황모(34) 씨는 "이런 거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며 "외국인 관광객도 많던데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라 망신 다 시킨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늘공원 자재창고를 시민 쉽터로 만들어 일반에 개방했다. 시는 "하늘공원은 휴게공간이 부족해 나들이객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100㎡의 기억창고를 비롯해 원형광장에 억새밭을 활용한 그늘막(20㎡)을 조성했고 곳곳에 이동형 파라솔과 빈백 의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